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법원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Supreme Court of Korea 2018.12.

vol.404



법원
사람들



대령! 대령!
대령!

지선넘비에 전하는

따뜻한 마음들



“올 한 해도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SECTION 1 + 내일을 위한 소통나누기

- 04 **프롤로그**
겨울 충주와 충주호
- 06 **법원 그곳**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10 **공감**
나눔의 기쁨, 봉사의 행복
- 12 **감성충전 행복투어**
충주로 떠나는 송년여행

SECTION 2 + 함께하는 행복나누기

- 16 **나의 일 나의 삶 1**
나의 일 나의 꿈

- 19 **나의 일 나의 삶 2**
만남... 행복의 또 다른 이름
- 22 **테마가 있는 글 1**
지리산 장도! 그 길에 가다
- 25 **테마가 있는 글 2**
96세 현역 판사
- 28 **법원으로의 초대**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대법원 및 법원전시관 방문기
- 30 **조사심의관 코너**
새로운 시작, 법원도서관이 국민 속으로!
- 34 **현장 속으로**
암흑의 시대, 꽃이 된 법관
故 이영구 판사 1주기 추모전 개최
- 대법원장 인터뷰
- 36 **어린이 소식지**
'국민참여재판' 나도 참여하고 싶어요! 외 1



CONTENTS

Supreme Court of Korea 2018. 12.
vol.404

- 38 **스타일링룸**
차가운 겨울 추위로 몰아내는 훈훈한 미소의 매력남
_정양석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실무관

SECTION 3 + 정보가 있는 공감나누기

- 44 **그 사람과의 인터뷰**
한 줄 카피, 세상도 바꿀 수 있는 힘
_정철 카피라이터
- 48 **건강칼럼**
내 몸을 지키는 힘, 면역력
- 50 **트렌드에 주목하라**
글로벌 시대, 지구촌 이웃과 '함께 만들어 가는 가치'
- 52 **법원 NEWS** 54 **공감우체통** 55 **마음의 편지**

통 권 404호
발 행 인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발 행 일 2018년 12월 1일
편 집 인 공보관 박진웅
편집총괄 홍보심의관 조영
편집기획팀 김태욱, 송소현, 이경미
발 행 처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전 화 02)3480-1456
팩 스 02)533-5484
법원사람들 홈페이지 <http://people.scourt.go.kr>
기획 · 디자인 · 인쇄 (주)현대아트컴 02)2278-4482



국내 최대의 콘크리트 다목적댐인 충주댐. 높이 97.5m, 제방길이 447m로 총저수량은 27억5000만이며 1980년에 착공하여 1986년에 완공.



겨울 충주와 충주호

전형적인 배산임수 분지인 충주는 계명산과 남산, 대림산이 각각 북·동·남으로 둘러쳐져 있고 산 아래로는 남한강과 달천강이 휘돌며 도시를 감싸고 있다. 덕분에 산수화 같은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지만 그중에서도 충주의 명품 절경으로 대표되는 충주호는 충주댐 건설로 생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호수다. 댐 건설로 충주, 단양, 제천 등 3개 도시의 일부가 수몰되어 약 5만 명의 주민이 고향을 잃는 아픔도 있었지만 빼어난 절경과 낚시, 유람선, 자전거도로, 인공 수초섬 등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든다. 또한 매해 겨울 강설량이 풍부하여 설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겨울 정취를 느끼기에 더없이 좋다. 이번 연말, 충주호에서 아름다운 낙조와 함께하는 송년여행을 계획해 보는 것은 어떨까.

사진 제공: 충주시청 관광과(043-850-6723)



나라의 중심에서 삶의 중심을 잡다

충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충주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오랜 역사 속에서 삼국이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수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진 곳이다. 삼국시대 최후의 승자였던 신라가 명명한 대로 '중원(국토의 중앙)' 충주에 자리 잡아 지역민들의 삶 속에서 중심이 되어주고 있는 법원, 충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을 소개한다.

취재 한경희 | 사진 김인규





판사 8명, 직원 61명(음성군법원 포함) 등 약 70명이 함께 일하는 작은 규모의 지원이지만 한 가족처럼 단합하여 지역민의 행복한 삶을 살피고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역사의 구심점 충주와 함께하는 충주지원

충청도가 충주와 청주의 앞글자를 따서 붙인 지명일 만큼 충주는 지리·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북위 37도 16분~36도 18분으로 한반도의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 삼국시대에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각축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기원전 3세기경 마한에 속했던 충주는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중원경(中原京)은 본래 고구려 국원성(國原城)이었는데 신라가 평정하여 진흥왕이 소경(小京)을 설치하였으며 문무왕 때 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2,592보였다. 경덕왕이 중원경으로 고쳤다”라는 기록이 있으며, 고려 태조에 이르러 지금의 ‘충주’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다.

충주에 있는 유서 깊은 다양한 문화재 역시 치열한 충주의 역사를 증거한다. 통일신라가 나라의 중앙을 표시하기 위해 세웠다는 일명 ‘중앙탑’, 한반도 내 유일한 고구려비로 역사적 가치가 큰 충주 고구려비, 태조의 스승이었던 보각국사의 묘탑인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보각국사 정혜원용탑, 국보 제197호), 우륵이 가야금을 타던 탄금대, 문헌상 우리나라 최초의 고갯길인 ‘하늘재길’ 등이 그것이다.

지난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올해 지원장으로 부임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정찬우 지원장은 관할지역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지역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충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도시입니다. 가령 백제의 문주왕이 고구려 장수왕의 침략을 피해 계명산 자락에 잠시 머물렀다고 하여 ‘안림동’이라는 명칭이 생긴 것, 고

구려 장수왕이 충주를 점령한 후 국원성을 설치하고 고구려비를 세운 것, 신라가 충주를 점령한 이후 신라의 귀족들을 이주시켜 중원경으로 만들고 ‘국토의 중앙’이라는 의미에서 중앙탑을 건립한 것 등에서 알 수 있죠.”

이 외에도 고려시대 몽골의 5차 침략에서 김윤후 장군이 충주산성에서 승리한 것 등 많은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지역으로 기록되어 있어 충주가 가진 가치를 가능케 한다.

최근 충주는 신도시를 조성하여 많은 기업체와 공장을 유치하는 등 현대적인 발전도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안보 오천, 월악산 국립공원, 충주호와 충주댐 등 많은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으며 음성군은 편리한 교통 및 수도권 지역과의 높은 접근성 등의 강점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체와 공장이 입주하고 있어 발전이 빠르게 기대된다.

관내 학생,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열린 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작은 규모의 법원이지만 전국의 다른 법원들과 마찬가지로 지역 내 학생들이 법원을 체험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관내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원 견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법원을 방문하게 하고 찾아가는 법 교육으로 친숙한 법원 이미지와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법교육과 법원 견학 프로그램에서는 판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져 학생들의 법원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점이나 법원의 역할, 업무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내 다문화가족을 법원으로 초청하기도 한다. 지난해 10월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열린 법원’ 행사는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 재판용어와 법률 상식 등을 알려주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높은 호응을 얻은 행사다. 더욱 낮은 자세로 지역민들을 섬기기 위한 정찬우 지원장의 의지가 담기기도 했다.

“재판에 있어서 판사가 갖춰야 할 자세 중 중요한 하나로 ‘겸손’을 꼽고 있는 저는 대민서비스에 있어서도 섬기는 자세를 강조합니다. 충주는 대도시보다 결혼이민자가 많은데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사회적 약자에 더욱더 많은 관심과 배려로 그들에게 법원이 가까운 곳에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과 11월에 실시한 ‘법! 이제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 행사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수급자 및 저소득 계층들이 밀집해 있는 임대 아파트 단지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가 지역민들에게 어려운 법 절차 상담과 법원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를 통해 혹여 법적 지식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고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한편, 사법부의 복지 후견적 서비스를 알려 친숙한 사법부 이미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

마음을 여는 후원 활동과 서로를 응원하는 신나는 일터

충주지원은 ‘계명사랑회’라고 이름 붙여진 소년·소녀가장 돕기 충주지원 모임을 결성하여 소년·소녀가장 3명에게 각각 매달 150,000원씩 후원하고 있다. 이 외에 명절이나 연말에는 이들을 만나 선물을 직접 전달하고 중·고

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교복을 선물한다. 또한 아이들과 직원 간에 일대일 멘토 관계를 맺어 아이들의 생활과 환경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피고 있다.

갈 곳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보호받을 수 없는 아동을 위한 휴식처로 마련된 충주시 동량면 소재 진여원에 방문하여 후원금 및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것도 매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활동이다.

충주지원의 후원 및 봉사활동 중 특별한 하나는 반려동물 보호센터 봉사다. 요즘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면서 동물 유기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충주지원에서는 관내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를 찾아 반려견과의 산책, 놀아주기, 목욕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생명 존중을 실천하고 나아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삶의 본보기를 보이며 모범이 되고 있다.

봉사 외에도 직원들이 출근하고 싶은 법원, 일할 맛 나는 일터로 만들기 위해 친목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활동도 있다. 축구,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볼링, 등산 등 체육활동이 활발하여 충주지원 직원들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여러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원에서도 각종 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지원 규모에 비해 상당히 다양한 동호회가 활발히 운영된다. 덕분에 직원들은 사기가 진작되고 근무 의욕이 고취되어 자연스럽게 신나는 일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사람 사는 정이 있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사람들, 그들이 품기는 훈훈한 온기 덕에 그들과 함께하는 지역민들의 겨울은 춥지만은 않을 듯하다. ❄️



각종 봉사활동, 체육활동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지역민을 위해 대민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 충주지원, 충실한 재판으로 지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찬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

법원은 법을 선언함으로써 각종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입니다. 법원이 법을 통하여 각종 사회적 분쟁을 해결한다고 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법에 대한 충실한 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재판을 받는 당사자로 하여금 재판 절차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전에 들었던 커

뮤니케이션 전문 강사의 강의 내용에 의하면, 절차적 만족감이란 한계가 없어 당사자들에게 이에 대한 절대적 만족감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당사자들로 하여금 판사가 증거나 주장을 간과하고 판결한 것이 아닌지, 또는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연줄로 인하여 판사보다 친한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절차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역 재판에 있어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원의 관할 구역인 충주시와 음성군은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서 인구의 유동성이 적은 곳입니다. 대도시에 비하여 결혼이민자가 많고 다문화가족이 많아 우리 지원에서는 연 2회 '다문화가족을 찾아가는 열린 법원'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에게 생소한 대한민국의 법률상식 등을 상담하여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7년 2월에 부장판사로 충주지원에 발령을 받아 형사단독판사로 1년간 근무하다가 2018년 2월에 지원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단란한 지원 분위기와는 달리 충주지원의 물적 시설은 열악한 편입니다. 현재 청사는 1979년에 준공된 오래된 건물인데, 건물의 전체적인 노후로 인한 누수, 단전,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지원장님께서 신청사로 이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셨고 저 역시 청사 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신청사 이전에는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도움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인적 구성은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직원들은 지역사정에 밝고 매우 성실하면서도 책임감이 강하며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판사 역시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인적 자원을 통하여 충주지원 관내 주민들께 대한민국 어느 법원 못지않게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역사

- 1895. 5. 10. 충주재판소 설치
- 1947. 1.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 명칭 변경
- 1966. 4. 1. 합의지원으로 승격
- 1979. 5. 31. 현재 청사로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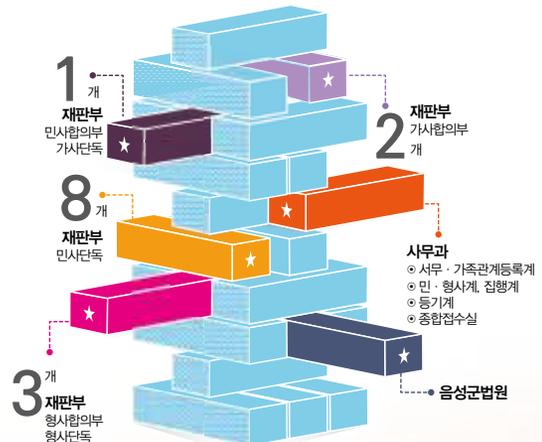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관할지역



	인구(명)	면적(km ²)	구성
충 주 시	213,782	983.59	12동 1읍 12면
음 성 군	106,212	520.53	2읍 7면
계	319,994	1,504.12	12동 3읍 19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조직 구성

현원 총 68명





(왼쪽부터) 박대선 실무관, 신다희 속기사, 오은주 참여관, 유형웅 판사.

연말연시에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 나눔의 기쁨, 봉사의 행복

추운 겨울을 맞으며 거리마다 구세군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광화문 사거리에는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지는 등 우리 사회 이곳저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나눔과 기부, 자선, 봉사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을지 몰라 막막하다면 여기 나눔과 봉사에 대한 이야기꽃이 활짝 핀 현장에 초대한다.

구성 한경희 | 사진 김인규



얼마 전 주윤발의 통 큰 기부 얘기 들으셨어요? 전 재산 8천100억여 원의 기부를 약속했다죠?



네,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관련 기사 제목이 '영원한 따거(형님)'라고 나왔던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의 전 재산 규모에 한 번 더 놀랐죠. 하하.



하하. 그런데 아직도 5만원을 기부하고 있다는 게 함정인군요.



하하. 저는 중학생 때 봉사 점수를 만들기 위해 기관을 찾던 중 어머니가 소록도 봉사활동을 추천해주셔서 갔었는데 그곳에서의 시간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요.



소록도라면 한센병, 흔히 나병으로 알려진 병을 가진 분들이 모여 지내는 곳 아닌가요? 어린 나이에 그곳에 가셨다면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었을 텐데요.



맞아요. 귀가 없거나 손가락이 녹아 붙어 있는 모습에 처음에는 움츠러들었는데 그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청소도 하면서 선입견을 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봉사를 다녀와서 그곳에서 제가 느낀 것들을 친구들에게도 많이 이야기했었죠.



하하하. 맞아요! 8천억? 억!!

주윤발 형님의 기부 규모를 듣고 나니 제 기부 사례는 꺼내놓지도 못하겠는데요. 하하. 저는 군법무관 시절부터 한 공익재단의 월급 1% 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요. 당시 월급의 1%가 2만5천원이었는데 좀 약소하다고 느껴져 5만원으로 시작했죠.



오! 자발적으로 2%를 하셨군요. 역시 멋지십니다.



봉사하러 가서 얻어가지고 돌아오는 게 더 많은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제 조카는 일주일에 한 번 장애인시설에 가요. 그 아이에게는 그 활동이 봉사나 나눔이 아니라 그냥 그 친구들과 노는 거예요. '장애인'이라는 구분 자체를 아예 갖지 않는 거죠.



어릴 적 나눔이나 봉사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장애아동들의 주말체험학습을 돕는 활동을 했는데 덕분에 장애인을 달리 보는 시선을 갖지 않게 됐어요.



이런 활동은 유명 연예인이나 사회 리더들의 솔선수범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선과 정혜영 부부의 기부 역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죠.

네. 선·정혜영 부부는 이제 나눔과 기부의 대명사 커플이 됐어요. 이제 그분들은 그 이미지를 내려놓고 싶어도 못 내려놓을 것 같네요. 하하.



하하하. 영향력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저도 기부 덕분에 결혼했습니다.



네?? 오, 정말이요? 아, 비결 좀...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분들을 위해 모금하는 것을 보고 10만원을 후원했는데 나중에 영화 초대권이 왔더라고요. 그 기부금으로 만든 영화였죠. 당시 4번 정도 만난 여성과 함께 그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여성이 지금의 아내입니다.



우와! 박수~ 두 분 모두 멋집니다~

영화에서 판사님 이름도 나오지 않았나요? 영화 엔딩크레딧 올라갈 때 보면 후원자들의 이름도 게시하던데요.



제 이름이 나왔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마 앉아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내가 그것 때문에 제게 반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만남에 일조한 것은 분명하네요.



저도 기부 덕분에 아이 한 명을 키웠어요. 네팔의 어린이 한 명을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하는 기부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제 딸 이름은 '씨빠나 보르페', 친구들이 저와 닮았다고 했어요. 하하. 9년 동안 기부하고 아이가 성년이 되어 후원을 마쳤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결혼도 하시기 전에 딸 한 명을 키우셨네요.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자녀를 키워보셨어요?



아, 하하. 그러지 않아도 또 다른 아이를 키우라고 하셔서 이제 제 자식을 직접 키워봐야겠다고 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직접 입양을 통해 딸을 훌륭히 키워내신 분이 있어요. 아기가 입양되기 전 잠깐 돌봐주는 봉사를 하셨는데 유난히 한 아기가 마음에 남아 가족들과 상의해서서 입양을 결정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15년 전이에요.



와, 입양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인데 모든 가족이 큰 결심을하신 거네요. 아이가 잘 성장했는지 궁금하네요.



얼마 전에 봤어요. 그 아이는 너무나 잘 자라 있더라고요. 제 마음이 다 몽클했어요. 그때는 미혼이라 잘 알지 못했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상대적 약자인 아이들에게 보살핌과 도움의 손길이 절대적이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요즘은 시간 될 때마다 온라인 기부 포털로 환아,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곤 해요. 쇼핑하듯 결제버튼을 누르면 되니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기부나 나눔도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프로그램도 많아요. 개인의 만족도를 높여 참여도를 더욱 높이는 기업의 사회공헌 아이디어들도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이후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봉사활동에 조금 소홀했던 것 같아요. 이번 연말에 좀 더 재미있게 기부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아, 좋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나눔과 함께 따뜻한 연말되세요. 미리 메리크리스마스! 하하하~



충주로 떠나는 송년 여행

충주의 옛 이름, 중원(中原)은 국토의 한복판이라는 뜻이다. 한 해의 종착역, 12월을 맞으며 국토의 정중앙에서 한 해를 조용히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시간을 갖는다면 더 없이 뜻깊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

글·사진 김초록(여행작가)

탄금대에서 남한강을 굽어보다

여행의 시작은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충주시내다. 충주시 성내동에 있는 관아공원은 조선시대 충주읍성 내에 있던 충주목(忠州牧)의 관아(官衙) 자리다. 1981년까지 중원군청 청사의 일부로 쓰다가 공원으로 꾸며놓았는데 충주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공원에는 충주목 동헌으로 쓰던 청명헌(淸寧軒)과 내아인 제금당(製錦堂) 등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으며 수령 510년의 느티나무가 공원 한쪽에 서 있다. 주변에 있는 충주문화회관, 관아갤러리에도 둘러 문화의 향기에 흠뻑 취해보는 것도 좋다. 수수한 삶의 현장인 무학시장과 자유시장이 지척에 있고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유년기와 학창시절을 보낸 옛집도 있다. 옛집을 복원해 학창시절에 썼던 손때 묻은 물품들과 성장기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32년, 달천평야(야모리래들)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든 호암지도

시내에서 둘러보기 좋은 곳이다. 한편, 충주는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인 택견의 고장이다. 시내 금릉동에는 이를 알리기 위해 꾸며놓은 충주세계무술공원이 있다. 공원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무술을 볼 수 있는 충주세계무술박물관을 비롯해 수석을 전시한 수석공원, 남한강 호박돌로 만든 돌 미로원, 세계 최대 상설 빛 테마파크인 라이트월드가 있다.

남한강이 바라보이는 충주시 칠금동의 아트막한 산자락. 명승 제42호로 지정된 탄금대(彈琴臺)가 있는 곳이다. 탄금대는 신라 진흥왕 때 우리나라 3대 악성(樂聖) 중 한 분인 우륵(于勒)이 가야금을 연주한 곳. 탄금대라는 명칭도 우륵이 가야금을 타며 한 세월을 보낸 곳이라는 데에서 유래했다. 탄금대는 또한 조선시대의 명장, 신립 장군이 왜군을 상대로 격전을 치른 곳이기도 하다. '우륵 선생 추모비'를 보고 탄금대 북쪽 남한강 언덕으로 돌아가면 '열

두대'라고 하는 가파른 절벽이 있는데 1592년 신립 장군이 전투 때 뜨거워진 활시위를 식히기 위해 강 아래로 열두 번이나 이곳을 오르내렸다는 전설이 있다. 어디까지나 전설이지만 그 당시 치열했던 삶의 단면을 그려볼 수 있다.

마음으로 만나는 중원문화재

탄금대에서 내려와 남한강 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가본다. 남한강은 S자로 굽이치며 이곳 중앙탑면 탑평리(塔坪里)를 지난다. 중앙탑면이라는 면소재지 이름도 예사롭지 않은데 탑평리라는 마을 이름도 그렇다. 마을의 옛 이름은 '탑들'로 '탑이 있는 땅'이란 뜻이라고 한다. 탑평리 마을 한쪽에 드넓은 공원이 꾸며져 있다. 잔디밭에 각종 조각 작품이 전시돼 있고 정자가 있고 수목이 자라고 벤치가 있고 그 옆으로 푸른 탄금호가 펼쳐져 있다.

공원 한복판에 서 있는 칠층석탑, 크기와 높이가 시선을 압도한다. 탑평리칠층석탑, 일명 중앙탑(中央塔, 국보 제6호)이다. 통일신라 원성왕 때 세운, 신라의 석탑 중 길이(7층, 14.5m)가 가장 긴 탑으로 알려져 있

시내 도보 코스(소요시간: 약 3시간 30분)



다. 중앙탑 바로 옆에는 충주박물관과 세계술문화박물관 '리퀴리움'이 자리하고 있다. 신라시대 무덤군인 누암리고분군(사적 제463호)도 가까이에 있다. 한강 유역을 점령한 진흥왕은 신라의 귀족을 충주로 이주시켜 살게 했다. 누암리고분군은 이들의 무덤



(좌측 페이지)관아공원에 있는 청령헌. (우측 페이지 왼쪽부터 시계방향)관아공원의 느티나무, 신라시대 무덤인 누암리고분군, 충주시민들이 즐겨 찾는 호암지, 충주세계무술박물관, 남한강이 내려다보이는 탄금대, 충주 라이트월드의 루미나리에(사진: 충주 라이트월드 제공).



(왼쪽부터 시계방향)유려하고 단아한 중앙탑, 충주고구려비전시관, 옛 목계나루터를 알리는 입석, 충주고구려비전시관에 전시한 고구려비.

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탑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인 중앙탑면 용전리 입석마을에 있는 충주 고구려비(옛 증원고구려비, 국보 제205호)는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는 고구려비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치가 상당한 문화재다. 높이 203cm, 너비 55cm 정도의 화강암 자연석에 예서풍의 한자를 새겨놓았다. 충주 고구려비는 보존을 위해 옆에 들어선 ‘충주고구려비전시관’에서 볼 수 있다. 충주와 입석마을의 역사, 지정학적 중요성, 고구려비 발견 과정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충주고구려비

전시관 뒤편은 장미산성으로 오르는 잣고개(잔미마을) 들머리다. 여기서 조붓한 등산로를 따라 1km쯤 오르면 고구려, 백제, 신라 군사들이 밀고 당겼던 장미산성에 닿는다.

충주 고구려비에서 남한강을 따라 원주 방향으로 가다보면 목계교가 나타난다. 목계교 앞은 옛날 목계나루터가 있던 곳이다. 강이 으레 그렇듯이 남한강도 수많은 물고기들의 터전이다. 목계나루 앞 남한강에 사는 올뱅이도 그 중의 하나. 올뱅이로 끓인 해장국은 예부터 충주의 향토음식으로 대접받아왔다. 올뱅이는 다슬기의 충청권 사투리로 지역에 따라 올갱이로 부르기도 한다. 단단한 껍질 속에서 뽑아 낸 올뱅이 속살을 물에 넣고 된장과 고추장을 풀어 아욱이나 부추, 대파, 마늘 등을 넣고 끓여내는데 구수하고 담백한 맛을 낸다. 올뱅이는 성인병 예방, 간 기능 보호, 빈혈 예방, 시력 회복, 숙취 해소에 효능이 있다고 한다.

여기서 가까운 엄정면 괴동리에는 경종대왕 태실과 태실비가 있다. 숙종 15년(1689년), 경종대왕의 탄생을 알리고자 태줄을 도자기에 담아 이곳에 안치했다. 소태면 청계산 중턱에 있는 청룡사지에도 들리보자. 보각국사의 자취가 어린 절터로 보각국사정혜원용탑(국보 제197호)과 보각국사정혜원용탑비(보물 제658호)는 그 기품이 예사롭지 않다. 두 유적지는





(왼쪽부터 시계방향)담백한 맛을 내는 올뱅이 해장국, 보물로 지정된 보각국사정혜원웅담비, 충주호 유람선이 출발하는 월악나루, 충주와 문경 땅을 잇는 하늘재길, 미륵리 5층석탑, 경종대왕 태실.

반경 5km 내에 있어 연계해 둘러보는데 무리가 없다. 양평, 여주, 충주를 차례로 거슬러 내려온 남한강 물줄기는 충주댐에서 마침표를 찍는다. 충주댐 근처에는 중원 지역의 선사시대(신석기~청동기) 유물을 모아놓은 조동리 선사유적박물관이 있다. 이곳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와 간돌검, 돌도끼 등 많은 석기 유물은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더듬어보는데 중요한 학술적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

충주호 유람선 여행과 우리나라 최초로 뚫린 고갯길

충주가 내륙 관광지로 각광받는 건 충주호가 있기 때문이다. 충주호는 군데군데 유람선 선착장(충주나루, 월악나루, 청풍나루, 장화나루)이 있어 호수의 비경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겨울철에는 유람선이 안 뜨는 날이 잦아 미리 확인하고 가야 한다.

송계계곡~만수계곡을 잇는 597번 지방도로는 수안보온천으로 이어진다. 왕의 온천으로 불리는 수안보온천은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 용출 온천이다. 충주는 온천의 도시로 불릴 만큼 곳곳에서 온천이 솟아오른다. 양성면 능암리와 돈산리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저온 탄산온천이 있다. 지하 700m에서 용출되는 탄산수는 25~28도를 향

상 유지하는데 탕 안에 들어가면 기포가 방울방울 살갓에 달라붙어 신기하다.

충주호는 월악산과 어깨를 맞대고 있다. 월악산은 그 웅장한 품에 아름다운 계곡을 만드니 송계계곡, 만수계곡, 용하구곡이 그것들이다. 만수계곡 위쪽에는 신라의 왕자, 마의태자의 전설이 묻혀 있는 미륵대원지가 있다. 이곳에는 5층석탑(보물 제95호), 석조여래입상(보물 제96호)을 비롯해 석등(지방유형문화재 제19호), 3층석탑(지방문화재 제33호), 그리고 비석의 기단인 커다란 돌거북이 유적으로 남아 있다. 그 중 여러 조각의 커다란 화강석으로 이루어진 석조여래입상은 높이가 10.6m에 이르는데, 현재 보수 중으로 가림막이 쳐져 있다.

절터 뒤쪽으로는 경상도 문경 땅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갯길 하늘재(국가명승 제49호)가 있다. 하늘과 맞닿아 있다고 해서 이름 붙은 하늘재(해발 525m)는 그다지 높지는 않다. 미륵리에서 30~40분(2km) 정도 걸어 오르면 곧바로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로 연결된다. 길 중간 중간에는 역사자연 관찰로가 꾸며져 있고, 숲의 생태와 부근 유적에 대한 안내판이 세워져 있어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제격이니 방향을 맞은 자녀와 연말여행으로 찾아보면 어떨까. 📍

나의 일 나의 꿈

글 신경석(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행정관)



꿈이란 게 그런 것이리라. 되지 않은 '악몽'은 급해지는 화장실에 어쩔 수 없이 깨지면 다행스럽기까지 하지만, 허망한 '개꿈'은 꿈인 줄 알고서도 오줌보를 압박하며 몽그리는 건 붙잡고 싶은 허전함이 크기 때문이리라.

다행인 것은 이러한 아쉬움이 얼마나 컸으면 노래 제목까지 제법 등장한다는 사실이고, 가수 조덕배는 '꿈에 어제 꿈에 보았던 이름 모를 너를 나는 못 잊어'라는 노래가사에서 이름조차 모르는 꿈에 본 여인을 사랑한다는 황당함으로 나를 대신해 사춘기 때 여인에 대한 '개꿈'을 완벽하게 대변해 주었다.

법원이라는 직장에서 나의 일, 나의 삶, 나의 꿈은 무엇일까. 팽팽해지는 아랫배를 붙잡고도 이부자리 안에서 버틸 수 있는 내 삶에 꿈은 무엇일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격렬하게 더욱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광고 카피는 중3이 된 딸내미에게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었더니 되돌아온 답변이었다. 요즘은 좀 더 우아하게 변하였다. 특허가 많아 일할 필요 없는 백수. 이 말을 전해 들은 아내는 '그 꿈을 꼭 이루라'고 격려까지 하고, 나 또한 내심 부러워지는 건 특허보다 특허가 가져다주는 돈에 대한 아쉬움이라. 매달 20일 어김없이 입금되는 급여가 먹고 살기 위한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 대한 보상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매번 흘러가는 일요일 오후를 이유 없이 불쾌해하는 모습을 생 각해보면 지금의 나의 일은 결코 나의 꿈이 아님을 고백

한다.

매주 한 번 되도록 빼먹지 않고 챙기는 일은 등산이다. 산에 오르기 전에는 깨고 싶지 않은 단잠처럼 뚝을 들이지만, 하지 않으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듯 치워내는 의식이고 밥이다. 한 번 정도 가쁜 숨을 헐떡이며 힘들게 올라야만 웬지 할 일을 한 듯하고, 그래야만 힘들게 오른 산 정상에서 발아래를 굽어보며 꺼내 먹는 굴의 향기는 더욱 더 진하다. 그러나 여기에도 알팍한 규칙은 있다. 너무 산행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다시 말해 이기적이지만 산조차도 나를 위해 적절히 즐겨주는 대상이길 바라지, 나를 힘들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내가 찾고 있는 '개꿈'도 그러지 않을까. 적절히 힘들지만, 후딱 해치워야 개운할 것 같은, 그래서 누구에게나 설명하기도 쉽고, 진한 향기까지는 아닐지라도 절로 공감하여 고개가 끄덕여 지길 바란다. 그렇다면 가정과 직장에서 외도하듯 허망함을 채우기 위해 더욱더 이루고자 하는 막연한 대상이 무엇일까.

웃길 수도 있는 얘기지만, 내 이름이 저자명으로 기재된 책을 한권 쓰고 싶다. 높은 산을 기어오르는 전문산행이 아니고 찬찬히 그냥 즐길 수 있는 산책처럼 이기적인 책을 쓰길 바란다. 이왕 법원에 들어왔으니 언젠가는 법에 관련된 책 한 권 쓰리라 동료들에게 흘리듯 얘기하지만, 내 책을 선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다.



김칫국부터 들이마신 내 책 제목은 '내 아이와 함께 커가는 육아법률 이야기'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엄마들에게 시기별로 알려주는 산모수첩처럼 구성하고, 내 아이들에 대한 육아 경험을 사례를 곁들여 소개하면 더더욱 현실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출생 이전, 이후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며 발생하는 문제부터 성년 이후 결혼까지 생길 수 있는 사연들을 연령대 별로 소개하고 점검할 수 있는 책을 구성한다면 좋지 않을까. 책 한쪽에는 QR코드를 새겨넣어 바로 양식 등을 내려받고, 또한 나의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상담할 수도 있다면 스마트한 시대에 더더욱 편하리라. 아래에서 소개할 책 구성은 어찌면 내가 내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거나 고민하였던 사례이고 막연하게나 궁금하게 생각했던 상상물이다.

내 책의 첫 번째 꼭지는 아이를 처음 가졌을 때 들었던 다양한 의문들이다. 나에게는 다행히 해당하지 않았지만 만약 '아이가 발가락만 닮았다'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나를 부모 기재한다고 내 아이일까, 반대로 기재 안 한다면 그 아이와 내게 발생할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한다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기재되고 향후 신분 관계는 어찌 되나, 태아로 있을 때 부모 중 누군가 사망한다면 출생 전 상속 관계는 어떨까, 출산 과정에 의료과실이 발생한다면 의료비용과 장래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등 엉뚱하지만 출산이란 커다란 사건을 앞두고 발생할 듯한 사실에 상상력을 발휘하였다.

두 번째 꼭지는 아이가 태어나고 발생하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이다. 부모 중 일방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출생 후 이혼하였거나 애당초 미혼모라면 아니면 조부모가 키우게 된다면 양육비는, 더 나아가 법정대리인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 아이의 성분을 엄마 따라 정할 수도 있나, 그리고 이후에 계부나 계모의 성분으로 변

경하거나 심지어 법률상으로 친부나 친모를 제3자로 바꿀 수 있나 등이다.

세 번째 얘기는 출생신고 후 유치원에 들어갈 때까지로 내게도 많은 경험담이 있다. 어느 식당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돌 지난 아이와 함께 식사했을 때이다. 잠시 한눈과는 사이 아이가 그만 식당 가운데 놓여있는 손난로를 손으로 짚은 것이었다. 요즘 문제 되는 '아이 동반 출입금지 식당' 사례가 발생하였다. 자지러지는 아이와 달리 식당 주인은 오히려 아이를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추궁하는 듯한 분위기였고, 더더구나 그 식당은 부모님과 어느 정도 안면이 있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다행히 법원에 몸담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아들 녀석은 식당주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건강하게 치료를 마치고, 아이 엄마에게는 소정의 위자료도 안겨주는 효자가 되었다.

네 번째 꼭지는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내 아이가 어느 날 함께 놀던 아이와 다투다 상처가 난 경우이다. 유치원에서는 학부모끼리 합의하라고 하지만 유치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유치원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 아이 얼굴에 생긴 손톱자국이라 쉽게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성형비용까지 요구하는데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이렇게 계속되는 내 책은 아이의 성장 속도에 따라 계속되고, 마침내 그 누군가를 만나 결혼하게 되면 마무리된다. 어찌면 내 아이가 스스로 살 집을 마련하며 발생할 법률관계를 끝으로 여유롭게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 나 또한 이 책으로 저작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딸아이가 수없이 갖게 될 특허에는 비할 바가 아니지만 무모한 용기도 생긴다.

요즘엔 커가는 딸아이의 황당한 '돈 많은 백수 꿈'처럼 내 꿈도 하나 더 늘었다. 소소한 수필집도 한 권 쓰면 좋겠다. 시월의 마지막 날 어김없이 듣게 되는 가수 이용의 '시월의 마지막 밤'은 아니라도 법원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부담 없이 펼쳐보고 공감할 수 있는 '법원 수필'이



면 더욱 좋겠다.

나의 수필 '법원과 개나 고양이'에서는 법원마다 어슬렁대는 개나 고양이에 대한 얘기를 법원 사람들과 비교하며 써 내려가도 재미있으리라. 해남지원에도 두 마리 황구가 각기 다른 스탠스(stance)로 자리매김한다. 널따란 법원 정원 어딘가에 새끼까지 낳고 돌아다닌다는 어느 직원의 증언처럼 한 녀석은 통통 불은 젓가슴을 여과 없이 내보이며 자기 집처럼 당당히 돌아다닌다. 무슨 자신감인지 법원에 대한 주인의식이 투철하여 근무시간 종종 순찰을 돌고, 내게는 그리 친절하지 않은 구내식당 사장님으로부터도 항상 무엇인가를 상납받는다. 그에 비해 다른 녀석은 삐쩍 마른 게 쉽게 곁을 주지는 않고 항상 법원주위를 맴돌다가 몇몇 직원의 퇴근길을 배웅하기도 하고 출근길도 같이하곤 한다. 주위를 경계하는 눈빛에서 확실히 걸다리임이 드러나지만 왠지 측은한 마음에 애처롭기도 하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잊힐 존재이겠지 생각하지만 지나치기에 안스럽다. 법원 담벼락 샅길 통행이 편안해 보이는 고양이도 있다. 굳이 정문이 있지만 편안한 듯 뒷문을 선호하는 요 녀석은 미끈하게 살이 오른 게 제법 통통하다. 늘어지게 기지개를 켜는 모습과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 뒤태를 바라보면 언뜻 호랑이 걸음걸이다. 그에 비해 염치없는 도둑고양이처럼 잔뜩 움츠린 녀석도 있다. 재빠르게 사라지는 녀석은 관심이 없으면 잘 보이지도 않는다. 아니 보이지 않기를 바라지도 모르겠다. '법원과 나무'에서는 성격과 취향이 다른 동료들의 시시콜콜한 뒷이야기를 쉬이 풀어가도 좋을 것이다. 어느 법원이나 찾을 수 있는 바로 그 소나무처럼 항상 그 자리에서 머물며 회식 자리에서나 혹은 문득 한참 지나 회상하

더라도 되새길 수 있는 그 법원의 그 사람이 있다. 세월이 지날수록 경륜이 묻어나며 더운 여름날에는 쉬어가고, 추운 겨울날 다시 찾아보아도 꼭 있는 사람이다. 봄날 저녁 아른거리는 진한 매화 향처럼 매혹적인 이도 있을 것이며, 가을날 국화처럼 아름다운 누나가 있는가 하면 라일락 향기 가득한 여동생도 있을 것이다.

또한 '법원과 시간'에서는 법원과 지원을 전전하며 내가 보냈던 동호회 활동 시간을 점점이 얘기한다면 공감하지 않을까. 가을에 함께했던 체육행사에 대한 추억들과 가는 사람과 오는 사람, 이제는 잊혀 갈 법원만의 문화에 대한 잔상도 소소하게 풀어가면 재미있으리라. 굳이 연필을 사용하는 사무실의 문화는 어떠한가. 마치 초등학교 이래 '뱀생'이었음을 기억해내는 소재인 것처럼 우리네 사무실은 연필을 고집스럽게 사용한다. 심지어 법정에서조차 가지런히 연필을 깎아놓고 지우개로 쌍을 이루니 요즘처럼 편하게 샤프펜슬을 쓰고 버리는 시절에 왜 수고스러움이란 말인가. 하지만 나 또한 묘하게도 연필이 종이에 끌리는 둔탁함이, 그리고 수고스럽게 지우개로 닦아내고 털어내며 쾌감을 느낀다. 천상 '뱀생'이었기를..., 스스로 위로 해본다.

이제 '개꿈'을 적절히 마무리하고 깨어나려 한다. 막상 끝내려고 하니 딸내미가 무심코 내게 뱀었던 말이 생각난다. 나의 주절대는 잔소리에 '아빠 말의 요지는 뭐야'. '허걱'이지만 법원에 몸담은 사람의 딸이 분명하다. 또한 백세시대라지만 어제 우연히 와이프가 나에게 '우리 절반이나 살았을까'라는 질문에 부지런히 답해야겠다. 아끼다 남 주고, 애끼다 똥 되는 법. 법원 수필이건 뭐이건 부지런히 써 내려가야겠다. 📖

만남... 행복의 또 다른 이름

글 박종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지법원 참여관)



기나긴 터널

제대 후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 왔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법시험 준비를 야심차게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어두운 터널 속을 헤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제 자만이 불러온 결과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년이 넘도록 좁은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은 자신의 꿈을 이뤘거나 저마다의 삶을 찾아 떠났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만나는 친구들이 새로운 삶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저 부러웠고, 어서 빨리 저들과 비슷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터널 끝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7년 12월 20일

2017년 12월 20일,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날입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하루 전날이었는데 그날의 일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다음날이 정식 발표일이었지만 하루 전 저녁에 공고가 게시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휴대폰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마지막 시간 시험이 끝나는 종이 울리면 그 결과는 제 손을 떠난 것이기에 합격자 발표 여부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번만

은 달랐습니다. 수시로 '새로고침'을 클릭했고 클릭한 횟수만큼 초조합과 답답함이 더해 갔습니다. 그 초조합과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나섰고 쌀쌀한 날씨임에도 집 주변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기다려도 되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 시간 정도가 흐를 무렵,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것처럼 게시판을 확인했고 합격자발표문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순간 너무 떨렸고 '혹시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에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말이죠. 그래도 언젠가는 확인을 해야 할 것이었기에 용기 내어 공고문을 열어 보았습니다. 최종합격자 명단에서 닉은 수험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 휴학 여부를 고민하면서 친구와 나누었던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 힘들 때도 있겠지만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때는 불필요한 만남이나 원하지 않는 관계가 제가 준비하는 시험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었기에 그 친구의 말이 가슴속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긴 터널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그 친구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새로운 만남의 시작

2018년 2월 12일, 터널 속에서 그토록 바라던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교육원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으며, 교육원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에 사회생활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에 더해져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원에서 만났던 분들이 먼저 말 걸어 주셨고 앞으로의 법원 생활에 있어 필요한 조언을 아낌없이 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분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고 법원의 한 구성원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원에서 생활하면서 매일 누군가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고, 정해진 계획에 따라 생활하면서 그동안 보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고 할까요. 신림동 작은 공간 속, 친구들도 모두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난 그곳에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못한 채 지내던 시절과 비교하면 수업시간에 졸음을 참는 것, 과제와 시험을 위해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있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6월 21일, 광주지법원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근무할 법원에 계신 분들을 뵈기 위해서입니다. 버스를 타고 오면서 창밖으로 보이던 풍경들과는 달리 법원 주변에는 많은 관공서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법원은 주변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다소 높은 곳에 있었고 깨끗했으며 주변과 어울려 여유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수줍게 인사를 했고 직원분들은 환하게 웃으시며 반겨주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원장님 말씀에 교육원에 첫발을 내디디면서 했던 다짐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제 자리에 앉아서 첫 근무를 시작하던 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처음부터 담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원했던 공탁업무를 재판참여 업무와 함께 시작해야 했기에 두려움도 찾아오곤 했습니다. 조서를 작성하는 일, 공탁서류에 제 도장을 찍는 일 등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고, 하나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비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각자의 업무 때문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법원 이등병인 저를 잘 이끌어 주셨고, 특히 원장님께서도 제가 실수한 부분, 놓치고 있는 부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이제 조금씩 이등병 명찰을 뗄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만남

기나긴 터널을 지나 조금씩 햇살이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저에게 매우 소중한 또 하나의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지금 제 옆에 있는 여자친구와의 만남입니다.

저에게는 늘 그랬듯이 새로운 만남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별로 없었기에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 많은 것들이 낯설게만 느껴졌고, 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서툴고 거칠기만 했던 제 마음을 받아주었고 그렇게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들을 먹기 위해 여기저기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노을이 보이는 바닷가에서 이야기도 하는 등 다른 연인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매우 일상적인 일들이겠지만 저에게는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특별했고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귀여운 여동생 같고, 또 때로는 든든한 누나 같은 그녀 덕분에 제가 그동안 가질 수 없었고, 느낄 수 없었던 또 다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지의 만남을 위해

최근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과정 속에서 만남이란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에게 일어날 알 수 없는 만남이 매우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원부터 지금까지 만나온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를 이 글을 쓰면서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지난 10년이 어두워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만난 분들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관심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누군가에게 만남이 또 다른 행복의 이름이란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



지리산 장도! 그 길에 가다

글 김태수(부산지방법원 법원보안관리대 행정관)

첫 기억의 지리산은 험퍽이는 가쁜 심장, 짓이기는 어깨통으로 각인되어 한참을 산행은 접어두고 살았다. 8년여 직장생활 동안 허구한 날 회식에 토요일도 늦게 근무하여 일요일은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종일 잠만 잘 뿐이었다. 운동은 생각도 끼울 빈틈이 없는 상황에 IMF 사태가 발생하고 몇 번의 부서 이동 후 사직하고 지리산행을 감행하였다.



중산리 칼바위 산길을 택하여 오름을 시작했으나 한 시간도 채 못 되어 숨이 턱까지 차올라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았고, 어깨는 이미 으깨어지는 절구 속 낱알 같아서 목책 계단길 다섯 걸음에 멈추고 두 걸음에 멈추고…….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천왕봉을 바람으로 느끼는 것에 기쁘게 만족하고, 법계사 절 마당에 닿을 듯 낮은 하늘, 몽실한 하얀 구름만 눈에 넣고 내려오는 길에서 드디어 중산리 계곡 맑은 물소리가 경쾌하게 들릴 즈음에 아~ 살았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후 20년이 지나는 동안 찰순 브론슨 폼으로 피우던 담배도 끊고, 탁구도 즐기고 간혹 동네 산길도 험령험령 다녔다. 산악회 따라서 산길과 제법 친해지고, 계절마다 산바람이 부는 대로 다녀보니 지리산 계곡과 봉우리 몇 곳은 낯설지 않아 특별한 이들만의 지리산 중주 장도에 제 한발도 얹혀보기로 했다.

두렵고 설렌다는 딱! 두 마디로 첫날밤을 지새우고 구례터미널 06시 버스로 성삼재에 도착하니 달력에 있

던 운해가 10월의 찬 서리와 비벼진 채 골짜기마다 소복이 가득 담겨있다. 발길을 재촉하여 노고단 운해를 다시 보니 그야말로 구름바다이다. 형용할 재주가 없어 그저 구름바다라 풀어 말할 수밖에 없음을 자탄하면서 피아골 삼거리로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가을 물이 더해가는 나무, 돌, 이끼, 이파리 박수 속에 깊이깊이 숨길을 터며 처음 쉼표를 놓았다.

2박 3일 산길이라 줄이고 줄여 점심은 전투식량으로 반찬은 깻잎, 참치, 장조림 캔 그리고 라면만 준비하고 햇반은 사 먹기로 했으나 배낭은 이미 15킬로를 넘는 다. 다행히 지리산은 길목마다 젓줄 같은 식수가 대피소마다 풍부하여 물 무게는 벗어날 수 있다.

지리산 3대 주봉인 반야봉을 지나 삼도봉에서 맑고 두꺼운 흰 구름과 하동, 남해, 거창 먼 곳을 가늠하며 찬물로 전투식량을 하는데 한결같이 제 배낭 먹거리를 내놓기 바쁘다. 같은 마음으로 무게를 덜고 싶어서 비슷하게 풀어놓기로 하고 나이 들과 힘겨움을 속절없이 받아들인다.



화개재 너른 마당까지 내달려 형제봉에 이르는 길은 긴 내리막계단으로 단단히 조인 무릎보호대에 무게감이 더해져도 반대편 오름보다 낫다는 위안으로 삼으나, 세상사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는 것을.

깊이 내려 보니 다시 오름길이 아득히 멀다 싶은 형제봉을 건너고, 붉노란 단풍이 짙은 만큼 검은 나무등치가 오롯이 선명히 드러날 즈음, 투박한 등산화에 돌부리가 채기 시작한다. 연신 돌길에 발은 차이고 울퉁불퉁 돌바닥에 발가락이 시큰거리도 쉽고개 마다 단물 같은 풍경과 짝 찬 푸른 하늘이 주는 시원함에 힘들다는 생각은 다행히 더 들지 않는다.

연하천대피소

그대는 나날이 변덕스럽지만 지리산은 변하면서도 언제나 첫 마음이니 행여 견딜만하다면 제발 오지 마시라
 꽃말처럼 답답해 보이는 첫 숙영지의 샘물 한잔은 다디달아 막 녹는 아이스크림같이 부드럽게 입과 혀와 목덜미와 장 깊숙한 곳까지 전달되었다. 무사히 첫길을 마쳤다는

기쁨과 맘 놓고 쉬다는 안도 그리고 제대로 한 끼를 먹는다는 기대가 맑은 샘과 맑은 공기와 섞여 행복한 참맛이 되었다.

대피소의 아홉 시 소등과 관계없이 그전에 모두 잠에 빠져들고 코골이, 이갈이 탓할 겨를도 없고, 한자리에 귀마개를 하고 뻗어 누우니 金床이 부럽지 않다.

일찍 잠든 탓에 실컷 자고 봐도 열두 시 반이다. 뒤척이다 지리산 별이 별안간 떠올라 하늘에 서니 0°C의 시원스러운 공기가 질게 물먹은 안개와 칠흑 같은 밤에 더해서 한치 앞을 가늠 수 없다.

새벽 네 시 반 다시 길에 들기 위해 부산스러운 몸놀림으로 밤중에 나가 보니 밤별이 깨알같이 부어져서, 어릴 때 겨울밤 요강에 무릎 꿇고 눈길을 주고받던 오리온 별자리는 선명하고, 건너편 북두칠성과 북극성은 변함없이 등대로 있고, 은하수는 넓고 길게 지리산 줄기처럼 하늘에 걸쳐 있다.

그 아침 별이 꺼진 자리에 빛이 붉고 하늘색이 변하는데 여성 산객 서넛이 대피소에 도착해서 물으니 성삼재에서 새벽 세 시에 출발해 당일 종주로 오후에 천왕봉을 넘어 중산리로 산행을 마친다 하니 같은 길을 그들은 하룻길, 우리는 삼일 길을 걸을 것이다.

부지런한 다음날 길, 몸도 한결 가벼워져 바윗길과 하늘 길에 이를 때마다 산 너른 골과 섬진강 굽이에 서 있는 고사목 배경에 제 모습 끼워가며, 가을 깊은 산속에 잔털까지 취했다가 급기야 주검이 된 후 고향 산자락 해 좋은 나무 아래 흠어짐이 최고라는 결론에 동반 산객 모두 이의가 없다.

선비샘 바위 터에 한잔 물 넘김으로 첫 침을 하고 벽소령 공사장을 지나 칠선봉을 돌아 한참을 오르고 내려서니 조금씩 발이 무거워져 쉬고 싶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꼬리를

잡고 놓지 않는다.

백절불굴(百折不屈)! 걷기에만 집중한다, 허리를 더 곧추 세운다, 근육마다 세밀하게 움직여 나간다. 아~~ 저만치 세석평전 지붕이 널따랗게 드러난다. 제법 뜨끈한 전투식량과 연양갱으로 보충하고 평전 습지를 지나 등선에 올라 보니 하늘과 맞닿듯 장중한 천왕봉과 중봉이 선명하게 가까이 다가와 있다.

처진 등 배낭을 당겨 업고 푸근한 뱃살 춤에 허리띠를 잡 채고 촛대봉을 향하는데 멀기만 하고, 지겨워 지칠 때쯤 응원이 들려온다. 시작 길에 같이 못 한 벗이 백무동에서 장터목으로 오른다는 것이다.

촛대봉 바위꼭대기에 장군처럼 서서 보고 연하봉 허리를 둘러 지나니 장터목이 피곤함을 느낄 틈도 없이 앞자리에 벗이랑 환히 웃고 있다. 서리맞은 듯 수건을 적셔 몸도 닦고 발도 닦고 옷도 갈아입으니 제법 신사가 되었다. 두 밤 동안 새벽별에 또 취해보며 무사히 오늘 길에 당도함을 감사드린다.

새날 아침의 천왕봉 일출 새벽길에 들었는데 갑자기 다리가 무겁고 숨이 가빠서 제대로 오를까 싶고, 성탄 트리처럼 늘어선 산객들의 머릿등불도 아련하게만 보인다. 세찬 바람이 등선을 넘나들 때마다 빈 몸과 빈 가방을 쓸어 넘길 듯해서 무릎을 몇 번이나 부여잡고 돌계단을 헉헉대며 통천문을 어기적어기적 지나 고개 들어 하늘 보니 아, 천왕봉이다.

드디어 종주 장도의 꼭짓점에 이르렀다. 사방팔방은 여명에 붉게 물든 검은 구름 떠가 끝없이 펼쳐지고 종이를 쥐다 펼친 듯 너른 산봉우리들은 가득히 내려 보인다. 바위 틈에 산객과 일출을 기다리며 돌아보니, 산 바위가 울긋불긋 산객의 옷으로 물들어서, 해가 떠다 놀라 다시 숨을 까 걱정 중에 저만치 붉음이 더하고 진해지더니 옆계, 수



줍게, 크게, 해가, 햇살이, 햇벌이 사방팔방 밝는다.

긴 하산길 마지막으로 무릎에 기운을 불어넣은 후 법계사 일주문에 낮게 읊하며 꿈꾸던 지리종주를 허락한 온산 천지에 벅차게 절하였다.

이 생각 저 생각 분별없이 사는 동안 긴 산길에서 깊이 성찰하여 분명히 하고자 했으나 힘듦에 지쳐 처음 산란한 생각은 끝에 아무런 생각으로 남지 않고, 지나며 길동무한 그림 같은 바람과 색깔 좋은 나무와 질푸른 하늘 그리고 별처럼 무수한 산돌들은 하나하나 귀하고 따뜻하게 남았다. 천천히 가며 여유를 더한 산길의 끝에 서서 아직 쓸 만한 체력과 빛나는 젊음이 있는 것을 만끽하며 하얗게 웃는다.

2018년 10월13일에서 15일까지

96세 현역 판사

글 김도현(부산고등법원 판사)

1년간 뉴욕 포덤 로스쿨에서 연수를 받고 복귀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순간을 공유하고자 기존 '해의사법소식'으로 제출했던 글을 편집하여 법원사람들에 기고합니다.

1. Jack B. Weinstein 판사 – 96세 현역 판사

90세 넘는 분과 대화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96세 판사와 면담을 하러 가자니 걱정이 많았습니다. 2017. 10. 4. 오후 브루클린 소재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Eastern District of New York, 뉴욕주에서 1심 사건을 처리하는 4개의 연방법원 중 하나)을 방문했습니다. 큰 키의 Weinstein 판사가 인자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Weinstein 판사는 오전 재판이 늦어져 점심을 먹지 못했다면서 양해를 구하고 샐러드로 식사하며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 진행 중에는 수시로 로클릭(재판연구원)들을 불러 저에게 필요한 자료를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Weinstein 판사는 시니어 판사(Senior Judge)입니다(연방판사는 종신직입니다. 다만 65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판사로 재직할 경우 시니어 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시니어 판사는 급여를 그대로 받으면서 사건 배당은 줄일 수 있습니다. 은퇴하더라도 종전 급여와 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니어 판사로 남는 이유는 해당 법원 동료 판사들의 사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시니어 판사는 해당 법원의 판사 정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법원에 새로운 판사를 추가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

Weinstein 판사는 1921년에 출생했습니다(2018년 10월 현재는 97세이고, 여전히 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잠수함을 타고 우리나라 남해에 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1967년 연방법원 판사로 지명되었고, 1980년부터 1988년까지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법원장을 맡기도 하였으며, 1993년 시니어 판사가 되었습니다. Weinstein 판사는 현재까지도 다른 판사들과 같은 비율로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Weinstein 판사를 찾아간 이유는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 집단소송, 광역소송, 집단피해 불법행위소송 등을 아우르는 개념)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Mass Tort(집단피해 불법행위소송)의 신'으로 불리는 그는 수많은 복잡소송을 처리해 왔습니다. Agent Orange 사건(베트남전에서 사용한 제초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퇴역군인들이 제기한 사건)으로 Weinstein 판사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

는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여 군인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방안으로 조정을 이끌어냄), 석면 피해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Weinstein 판사는 집단피해 불법행위소송 사건의 처리에 있어 피해를 입은 대중과의 소통을 강조하였습니다. 판사가 진실을 추구할 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면서, 판사는 항상 의심하고, 질문하며, 실험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여 보다 적절하고도 많은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들이 불법행위,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엄격히 요구하는 기존 법리로는 집단피해 불법행위소송 사건들을 적절히 처리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Agent Orange 사건과 석면 피해 사건에서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분명하지는 않

았지만, '대중이 입은 광범위한 손해는 반드시 배상되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판사의 중립성이 중요한 것이기는 하나, 판사는 자신의 경험과 견해를 반영하여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판사마다 견해가 달라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다양한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판사는 장님이 아니며, 반드시 인간적인 면모를 가져야 한다고(Justice must have a human face) 강조하였습니다.

사실 Weinstein 판사에 대해서는 '선입견을 갖고 재판한다. 재판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Big strike zone을 가지고 있다'는 등 원고들의 보호에만 치중한다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사건이 Weinstein 판사에게 관련 사건으로 배당되도록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십 년간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해온 노(老)판사의 느릿느릿하면서도 꼭꼭 눌러 담은 한마디 한마디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Weinstein 판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지 않은 채 법대가 아닌 법대 앞 테이블(우리로 치면 사무관님들 자리)에 앉아 재판(배심재판 제외)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사자들과 눈높이를 맞춰, 그들이 법정에서 보다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96세 판사가 사건을 제대로 장악하고 진행할 수 있을까' 궁금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방청한 사건은 웹사이트가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하였는지가 쟁점이었는데, Weinstein 판사는 직접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해 대리인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검증하면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은 진지하면서도 위트 있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Weinstein 판사는 대리인들이 편안하게 진술하도록 각별히 배려하였습니다. 재판이 끝

난 후에는 서너 명의 방청객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법정이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2. Denise Cote 판사

1946년 출생(만 71세)한 Cote 판사는 Weinstein 판사의 로클릭을 거쳐 1994년 연방법원 판사로 지명되고 2011년 시니어 판사가 되었습니다.

2017. 11. 30. 오후 맨해튼 소재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판사실에서 Cote 판사를 만났습니다. Cote 판사는 널찍하고 고풍스러운 판사실에서 매우 상냥하게 맞아주었습니다.

Cote 판사는 광역소송(Multidistrict Litigation, 쟁점이 공통된 여러 개의 소가 다른 관할구역의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경우 한 곳의 연방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처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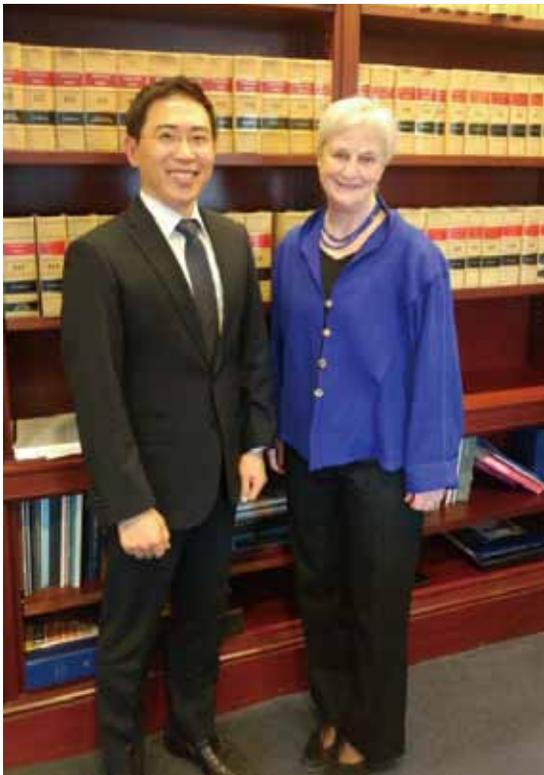
는 것), 집단소송(Class Action) 사건들을 다수 처리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애플이 주요 출판사들과 담합하여 전자책 가격을 높였다고 판단하여 애플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고, 결국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4억 달러(약 4,50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Cote 판사는 연방 헌법에서 연방법원 판사를 종신직으로 한 것은 판사가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판결을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한 판사직에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라면서도, 어느 정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자신에게 적당한 것인지 늘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건강하지 못한 판사들이 재판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라고 걱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연방법원 판사들도 돈을 벌기 위해 판사직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연방법원 판사의 급여가 적지 않고 대부분 배우자들도 수입이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직으로서의 만족감, 지역 및 법조계의 존경 등 판사직 유지의 장점이 매우 많다고 하였습니다.

Cote 판사는 바쁜 판사 생활 중에도 항상 휴식하면서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 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였습니다.

3. 소회

두 시니어 판사는 사명감만으로 재판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96세, 71세라는 나이가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재판을 통해 확립한 소신을 당당히 펼치는 모습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판사들이 오래도록 재판을 계속하면서 경험과 소신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법원과 더 가까워진 다문화가족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대법원 및 법원전시관 방문기

최근 20년에 걸쳐 대한민국의 결혼이민자는 급격히 늘었다. 2017년을 기준으로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족은 31만여 가구로 더 이상 그들은 우리 사회의 이방인이 아니다. 지난 11월 8일, 한국에 터를 잡아 가정을 이룬 소중한 외국인 손님들이 대법원 및 법원전시관을 방문했다.

취재·사진 안형진



조금 더 친근하게, 조금 더 쉽게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교육, 자녀 언어발달 지원, 통번역 서비스, 한국어 교육,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으로, 구성원들에게 대법원 견학 프로그램을 추천해 정기적으로 대법원 및 법원전시관을 방문하고 있다.

대법원 및 법원전시관 견학은 센터가 추진하는 '인권 프

로그램'의 일환이다. 외국인인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나 언어의 어려움 등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할 때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서나 법원을 견학함으로써 대한민국 법 제도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일상에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견학은 법원과 법에 대한 친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견학 참가자들이 법원과 법에 대한 친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법원 견학은 쉽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구성됐다.

법원전시관에 모인 센터 가족들은 법원전시관 안내자의 안내에 따라 한국에서 '법(法)'이라는 한자어가 가지는 의미와 한국의 정의의 여신상, 조선시대 법집행 과정 등 한국의 법 역사에 대해 들은 뒤, 가사, 민사, 형사 등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재판의 종류와 과정에 대한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몇몇 참가자들은 전시물의 사진을 찍으며 기록을 남겼고, 손을 들어 평소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현재 법원의 모습과 법복의 역사에 대한 견학을 마친 참가자들은 대법정으로 이동했다. 대법정에서는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에 대한 이야기와 한국의 정의의 여신상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고 질문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법률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법정 견학을 마친 뒤 법원전시관으로 돌아온 참가자들은 잠시 쉬는 시간동안 모의법정에서 검사복, 판사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이어 견학 참가자들은 김영기 판사가 진행한 '판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다문화센터에서 법원 견학을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판사와의 대화 시간을 자청했다"라고 밝힌 김영기 판사는 근무 중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어 1년여 동안의 외국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어 외국인으로 타국에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대한 불편함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며 참가자들의 공감을 이끌었으며, 견학 참가자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재판의 과정을 예시를 들어 열정적으로 설명해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어 김영기 판사는 외국인들이 보다 쉽게 법률서비스에 다가설 수 있는 법원 종합민원실, 법률구조공단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이용해 대한민국에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여러분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지켜내고,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앞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자신감을 얻었어요"

견학을 마친 중국 국적의 결혼이민자 김길현 씨는 "외국인으로 한국에 살아가면서 법원이라는 곳에 와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판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조금 더 편하고 쉽게 법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같은 국적의 강경홍 씨도 "법원이 엄숙하고 어려운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와보니 그렇지 않았다.", "판사복을 직접 입어본 기억은 평생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기뻐했다.

한편 아이를 가진 이민자 아내가 걱정돼 시간을 내 함께 법원에 방문했다는 한국인 이상원 씨는 "다문화센터의 법원 방문은 취지도 좋았고 이민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견학 참가자들은 대한민국의 법원이 생각보다 가까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친근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땅에 정착해 살아가는 모든 이민자들에게 따뜻한 법원으로 다가설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

새로운 시작, 법원도서관이 국민 속으로!



글 김규동(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법원도서관 사무동의 이전

법원도서관은 23년간의 서초동 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지난 2018년 8월 24일 일산 사법연수원 청사 내에 새 보금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초동 청사(대법원 서관)

강의실용 건물과 교수실을 사무실용으로 개조하여 단장하고, 낡은 가구와 집기도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80명이 넘는 법원도서관 식구들이 한꺼번에 이사한다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지만 별 탈 없이 이사도 잘 마쳤습니다. 새 청사로 출근하여 새로 꾸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설레고 약간 어색한 기분이 들었던 것도 잠시,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이곳에서 오랫동안 지낸 것처럼 편안하고 익숙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아직 법원도서관의 이전을 완료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식 개관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개관을 위한 준비

요즘은 법원도서관 식구들 모두에게 참 분주한 하루하루



일산 청사

입니다. 보름 앞으로 성큼 다가온 새 열람실 개방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작업이 한창입니다. 새 서가와 열람용 테이블을 구입하여 배치하고, 책들을 새 서가에 배열합니다. 일산에 소장하고 있는 장서만 하더라도 약 14만 권에 이르는데, 이 책들을 열람과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서가에 배열한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새 열람실에 '법마루'라는 이름도 지어 주었습니다. 새 열람실 명칭 공모에 전국 법원가족 여러분들이 많은 응모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뜻과 소리를 가진 후보작들이 너무 많아 법원도서관 식구들이 몇 번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친 끝에 '법마루'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며칠 후에는 법마루 입구 한쪽 벽에 "여기는 법이 가는 길 책으로 밝히는 법마루입니다."라는 아름다운 글귀가 쓰인 현판이 붙을 예정입니다. 법마루 개방 및 법원도서관의 기능 확대에 따라 각종 규칙과 내규 정비 작업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법마루 대국민 개방에 따라 전자책, 웹DB, 오디오북 등 종래 법원 내부 가족들에게만 제공되던 온라인 서비스 중 일부를 법마루에 방문하는 일반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법마루 열람실 구석구석 법원도서관 식구들의 고민과 수고가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바닥 카펫과 벽면의 재질과 색상, 전등의 형태, 서가·열람석 테이블의 형태와 색상, 배치, 서가 옆면 싸인보드의 재질과 색상 등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법원도서관 식구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수많은 논의와 고민 끝에 세심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 법마루가 점점 그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을 보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혹시 준비가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이용자들이 불편해 할 만한 것은 없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드디어 2018년 12월 12일부터 법마루를 열고 열람실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번 조



사심서관 코너에서는 새 열람실 '법마루'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마루 개방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

법원도서관은 일산으로의 이전과 더불어 종전의 재판업무 지원 중심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새로 열게 될 열람실인 법마루를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준비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대법원열람실은 재판업무 지원이라는 법원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고 내실 있게 수행하게 하고, 법마루는 일반 국민과 법조 직역 종사자, 법률조사·연구자들을 위한 개방형 법률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법원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법원도서관 규정」(법원도서관 내규 제28호, 이하 '내규'라



고 한다)에 따르면, 기존 대법원열람실의 열람대상자는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 ②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 법학전문대학원생(법학 전공 대학원생 포함) 및 대학교수, ③ 국가기관과 연구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소속 기관장의 의뢰로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 ④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되어 있고(제2조 제1항), 위 ② 내지 ④에 해당하는 자가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제2조 제2항).

현행 내규에 의하더라도 법원 내부 이용자 외에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조 직역 종사자나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가 열람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법원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도서관이 대법원 청사 내에 있었을 때에는 청사 보안 등의 문제로 내부 이용자들 외에 일반 이용자의 이용이 매우 저조하거나 일반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도서관은 열람실의 대국민 개방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새 열람실 법마루의 열람대상자를 '16세 이상인 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제부터 16세 이상인 자는 누구나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법원도서관에 방문하여 일일이용증을 발급받아 법마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마루의 구성

법률전문도서관으로서의 법원도서관의 기능, 대국민 서비스 확대, 이용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법마루의 열람실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 1층 열람실

- 열람실 성격: 일반 국민을 위한 개방형 법률문화공간
- 장서구성: 판례·법령집, 사법행정간행물, 사회과학 도서, 교양도서
- 부대시설: 장애인열람실, 디지털검색대
- 서가·열람석 등: 큐빅서가 도입, 열람석 조명테이블 설치

▣ 2층 열람실

- 열람실 성격: 변호사, 교수, 로스쿨 학생 등 법조 직역 종사자, 법률조사·연구자 등을 위한 공간

- 장서구성: 국내 법률도서 및 정기간행물, 사법행정 간행물, 학위논문 등
- 부대시설: 개인을 위한 조사연구실(캐럴) 2실, 귀중본열람실, 디지털검색대
- 서가·열람석 등: 벽면서가 도입, 우드슬랩형 열람석 설치

▣ 3층 열람실

- 열람실 성격: 변호사, 교수, 로스쿨 학생 등 법조 지역 종사자, 법률조사·연구자 등을 위한 공간
- 장서구성: 동양(일본, 중국) 법률도서 및 정기간행물, 서양(영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법률도서 및 정기간행물
- 부대시설: 개인을 위한 조사연구실(캐럴) 4실, 세미나실 2실, 디지털검색대
- 서가·열람석 등: 어매니티(폐널, 테이블, 거치대 통합형 개인연구공간) 설치



구자들을 위한 조사연구실(캐럴)과 세미나실도 마련하였습니다.

새로운 서비스

법원도서관은 법마루에 방문하는 일반 이용자를 위해 일일열람증을 통해 회원관리, 출입관리, 좌석예약, 사물함관리시스템과 연동되도록 관리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축하였습니다.

또 자료검색 및 소장위치안내시스템을 도입하여 방문 이용자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소장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도서관은 방문 이용자들이 법마루 내에 비치된 디지털검색대를 통해 법원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디지털 자료를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방문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도서관 웹페이지를 새로 개설하였습니다.

장애인 방문 이용자들을 위해 장애인용 각종 공학기와 편의시설 등이 구비된 장애인 열람실과 법률조사·연

마무리하며

2018년 12월 12일 ‘법마루’가 일반 국민에게 선보이게 됩니다. 최종 완성된 법마루의 모습이 궁금하기도 하고 법마루에 방문하는 이용자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법원도서관 가족 모두의 땀과 노력이 깃든 법마루 열람실이 법조 지역 종사자, 법률조사·연구자,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에게 유익하고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원 가족 여러분들도 여유 있으실 때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하듯 일산에 들러 새로 시작하는 법원도서관을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법마루 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rary.scour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암흑의 시대, 꽃이 된 법관

故 이영구 판사 1주기 추모전 개최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밝게 빛난다. 암흑했던 시절, 국민과 헌법의 편에서 양심을 지켜냈던 한 판사의 빛은 이제 꽃이 되어 모두의 마음에 남았다. 故 이영구 판사의 1주기를 맞아 대법원은 故 이영구 판사 1주기 추모전을 열고 지난 11월 16일 추모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취재 안형진



추모전 개막식에는 故 이영구 판사의 유족, 법관 후배 등이 참석하여 고인의 유품을 둘러보며 故 이영구 판사를 추모했다.

그대,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故 이영구 판사는 서울민형사지법 영등포지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1976년 교내시위를 주도하여 기소된 대학생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하고, 긴급조치 9호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유신정권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결하였다. 이와 같이 사법정의에 기여한 공로로 故 이영구 판사는 2018. 9. 13.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 받았다. 故 이영구 판사가 보여준 소신과 용기에 훗날 언론과 법조계의 찬사가 이어졌으나,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법의 근본이 국민감정에 있다는 점에서 당시 판결은 명확했다. 당시 긴급조치가 잘못됐다는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 판결에 반영한 것

일 뿐”이라며, 후배 법관들에게 시세를 의식하지 말고 올바른 법을 잘 적용해 법 이상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조언하기도 하였다.

故 이영구 판사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년, 그는 떠났지만 그의 아름다운 소신은 여전히 울퉁은 빛을 내고 있다.

‘법의 근본은 국민’, 고인의 뜻 되새겨

대법원은 故 이영구 판사의 1주기를 맞아 고인의 생애를 추모하고 재판의 독립을 수호한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이번 추모전을 개최하게 되었다. 추모전 개막식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념사를 통해 “故 이영구 판사님께서서는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오로지 법의 근본이 되는 국민의 뜻을 살피고, 진지한 양심의 목소리에

故 이영구 판사 1주기 추모展



故 이영구 판사에게 추서된 국민훈장 모란장

귀를 기울이겠다는 평소 소신을 판결로 나타내셨다.”며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장으로서 고인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고인이 꿈꾸었던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故 이영구 판사의 유족대표로 나선 이희주 변호사는 “아버님은 늘 말씀은 적게 하셨고 자식들에게는 엄하셨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항상 따뜻하셨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하셔야 할 때는 언제나 주저함이 없으셨다.”고 고인을 추억했다.

故 이영구 판사의 법관 후배인 양삼승 변호사도 추모사를 통해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때에 하는 것을 영원한 책무로 삼는 판사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그리고 묵묵히 수행하셨다.”고 회고하며 “판사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은 우리들 가슴속에 시간이 가면서 더욱 커지고 깊어질 것입니다.”라고 고인의 뜻을 기렸다.

개막식을 마친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족, 참석자들은 전시된 故 이영구 판사의 판결문, 생전 이영구 판사가 입었던 법복, 소장도서, 고등고시 합격증 등 유품을 돌아보고 고인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이번 추모전시회는 11월 16일부터 12월 28일까지 대법원 1층 법원전시관 앞 입구에서 진행된다. 📍

Interview_ 김명수 대법원장

추모전 관람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훌륭함을 갖추는 데는 지위의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법원의 법관으로 우리의 귀감이 되는 분을 찾아내어 이를 기리는 행사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분들을 찾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일을 하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인상 깊은 유물은 어떤 것이었는지요.
모든 유물이 모두 매우 소박하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판사님께서 1976년 긴급조치위반 사건에서 법관들 중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하셨는데 그 판결문을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찾아 이를 전시한 것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판결문 끝에 있는 서명을 보고 숙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故 이영구 판사님은 어떤 분이셨으며 우리가 배울 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료에 의하면, 힘들었던 군사정권 시절인 1976년 전국 법원에 기소된 200건이 넘는 긴급조치위반 사건에서 유일하게 판사님만 무죄를 선고하셨고, 이로 인하여 좌천되었다가 결국 법복을 벗고 맡았습니다. 법관으로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법관들이 그러한 정신을 배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원사람들>을 통해 법원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법원 안팎의 사정이 매우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를 비롯한 모든 법원 구성원들이 각자 맡은 일을 흔들리지 않고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더라도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였으면 합니다.



어린이 소식지

December 2018

<http://museum.scourt.go.kr/courtmuseum/DcBoardListAction.work?gubun=3>

| NO. 15

‘국민참여재판’ 나도 참여하고 싶어요!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기 위해서 2018년 11월 12일 월요일 오전에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방청하는 재판에 지하철을 타고 향하면서 가슴이 뛰고 기대와 설레는 감정이 나를 흥분되게 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안에 들어선 순간 엄숙하고 조용한 느낌에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방청하게 될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건의 형사재판 1심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중 오전재판만 방청하게 되었습니다. 오전재판은 간단한 사건 개요에 대한 설명과 검사, 변호인의 모두 진술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 측 증인신문과 판결선고는 오후에 진행되는 관계로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오래전부터 법관이 되는 게 꿈이라서 처음 보게 된 재판의 과정, 배심원들의 진지하고 신중한 태도, 재판과정을 일반인인 배심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재판장님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아직은 내가 어려서 배심원이 될 수 없지만, 나중에 꼭 배심원에 뽑혀서 형사재판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재판장님이 하신 말씀 중 “주관적 편견이나 선입견은 배제하도록 합시다.”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국민참여재판의 의미를 잘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 국민들로 이루어진 배심원단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여 검사, 피고인, 증인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유, 무죄 평결 및 유죄 시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이야기하는 재판제도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참고하지만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단, 변호사, 경찰공무원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나를 포함하여 친구들도 만 20세 이상이 되면 배심원단에 참여하여 뜻깊은 경험을 하기 바랍니다.



서울목운초 4학년
김명욱 어린이기자



‘공소’와 ‘기소’가 뭐예요?

재판 용어들은 대부분 한자로 이루어져 있어 어린이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대표적인 법률 용어인 ‘공소’와 ‘기소’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소는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소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검사는 기소할지를 결정한 후 정식기소, 약식기소,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식기소를 하면 재판이 열려 피고인의 죄의 유무와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 약식기소를 하면 판사가 서면으로만 검토하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불기소처분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증거가 없거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과 같은 상황에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재판 용어들이 어렵기는 하지만 취재를 하는 내내 신기했고, 새로운 법률 용어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재판 용어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면 좋을 것입니다.



황곡초 6학년
윤소정 어린이기자





차가운 겨울 추위도 몰아내는

훈훈한 미소의
매력남

카메라가 어색하다며 살짝 포즈를 취했는데, “아, 좋습니다” 포토그래퍼의 칭찬을 연발 듣는다. 옆에 있는 나무를 살짝 건드렸을 뿐인데 화보가 됐다. 수줍게 미소를 띠었는데 베스트 컷이 나왔다. 이 정도면 프로모델이 아닌가. 셔터를 누르면 화보가 연출되는 자체발광 외모를 가진 ‘엄친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정양석 실무관을 소개한다.

취재 한경희 | 사진 김인규 | 촬영 협조 일산 벨라시타(www.bellacitta.co.kr)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2월 20일 첫 발령 후 현재까지 충주지원에 근무하고 있는 정양석 실무관입니다. 지난 7월부터는 등기계에서 등기접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업무는 입사했을 때 개명 접수 업무를 하였지만, 개명과는 다루는 프로그램도 다르고, 민원인이 많아서 안내가 아직도 어렵네요. 다행인 것은 주위에 함께 일하는 등기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큰 탈 없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등기 접수는 부동산 및 상업등기의 전반을 알고 있어야 안내가 수월한데, 아직 내공이 많이 부족하여 항상 배우는 자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일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첫 발령 때는 가족관계 업무 중 개명 업무를 담당했었는데요. 시청이나 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 업무를 법원이 감독한다는 것을 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민원 업무보다는 시청이나 읍면사무소 가족관계 담당자의 질의응답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에 인사이동으로 서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재판사무 프로그램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상태에서 인사업무, 법원행사 업무, 통계, 각종 문서접수를 하려니 야단도 많이 맞으며 가장 바쁜 6개월을 보냈습니다. 덕분에 조금이나마 법원 행정 업무를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그렇게 바쁜



정양석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실무관



6개월을 보낸 뒤, 7월 인사발령으로 현재 있는 곳의 등기 접수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이다 보니, 민원 업무도 개명 업무보다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좋으신 등기계 직원 분들과 함께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최근의 관심사도 궁금합니다.

보통 아침 8시 40분 정도에 출근하여 PC 및 무인발급기 전원을 켜는 등의 업무 준비로 시작합니다. 요즘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 이에 관련된 등기업무로 많이 바쁘네요. 자주 들어오진 않지만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사무실이 아주 바빠집니다. 최근 관심사는 아무래도 담당 업무가 등기이다 보니 등기 업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12월호 스타일링룸에 제가 참여하게 되어 이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는 편입니다. ‘이번 기회에 너의 스타일을 찾아라’ 등 여기 오기 전 많은 격려를 들었습니다.



회사생활 중 보람 있을 때와 힘든 때는 각각 언제이고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신청서 접수를 해드리다가 오신 분들이 업무를 잘 해결하고 가실 때면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접수담당자의 접수 안내가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때때로 감사 인사를 받을 때는 괜히 기분이 더 좋습니다. 가끔 민원인이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냐’며 화를 내시기도 해 당황스러운 때도 있지만, 다른 분들의 감사인사로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정을 헤아려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힘들 때면 영화감상, 등산, 산책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액션영화나 SF영화를 보거나, 산에 올라가 힘들었던 기억을 던져두면 스트레스나 고민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업무를 잘 해결하고 가실 때면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감사 인사를 받을 때는 기분이 더 좋습니다.”

동호회나 퇴근 후 즐기는 활동이 있으신가요?

법원 내에 동아리가 여럿 있는데, 그중 탁구, 볼링, e스포츠 동호회에 가입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력단련실에는 탁구대가 설치돼있어 점심시간이나 업무가 끝난 후 저녁시간에 선·후배님들과 가끔 탁구를 치고는 합니다. 업무 이후에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금요일이나 다음날 공휴일인 경우,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잠이 들 때까지 영화를 보곤 해요. 그렇게 영화를 보고 있으면 한 주간의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고향이 멀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고향에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동시간이 길어서 고향에 내려가서 주말을 보내다보면 주말이 너무 짧아 아쉬울 때가 많아요.

평소 즐겨 입는 스타일의 옷은 어떤가요?

공식행사가 있는 날이 아니면 캐주얼로 편하게 입습니다. 가끔 기분전환 하려고 청바지나 밝은 색 옷도 입어요.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안 입던 스타일도 한 번씩 도전해보고요. 월요일은 한 주의 시작을 위해 긴장감을 주려고 재킷을 입거나 넥타이를 매고 출근합니다. 업무상 옷에 특별히 제약은 없지만 법원의 공식행사에는 단정한 근무복장을 착용하고 있으며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인 만큼 너무 튀지 않은 단정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한편, 친구들을 만날 때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때는 슬랙스에 셔츠, 니트 등 편안한 스타일을 즐겨 입고, 평소에도 한 번씩 셔츠에 넥타이를 한다든지 정장을 입기도 해요.

체크수트, 빨간 코트 등 이번 스타일링룸에서 다소 파격적인 패션도 다양하게 제시하셨는데 패션 센스가 남다르신 것 같아요.

세계 패션 센스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웃음). 영화를 볼 때 배우들이 입고 나오는 옷이라던가, 거리에 가다가 보이는 쇼윈도 패션, 혹은 인터넷을 보다 모델 화보 등에





서 맘에 드는 스타일이 있으면 눈여겨 봤다가 나중에 옷을 구매할 때 참고하곤 해요. 또 옷을 살 때는 함께 매치할만한 옷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사는 편입니다. 좋아하는 색상은 파란색, 녹색을 좋아하고 비비드 컬러도 좋아하는데 주로 단색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단색을 좋아하다보니 밝은 색도 입어보고 싶긴 하지만 어두운 색이 제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 막상 옷을 고를 때는 어두운 색을 고르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스타일링룸에 제가 제시한 스타일들은 평소 출근복장으로는 부담스럽지만 한번쯤 입어보고 싶은 스타일들이라 제시해 보았습니다.

평소 자신의 성격은 어떤 편이세요, 자신만의 특기가 있으신가요?

조용하고, 내향적입니다. 내향적인 성격 덕분에 계획대로 행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매사 일처리를 차분하고 침착하게 하려고 노력하며 사무실 직원들간에 관계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이 아니어서 주도적이지는 않지만 회사에 행사가 있으면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기라고 말씀 드릴만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이어폰, 헤드폰, 스피커 등 음향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가성비 좋은 음향기기 등에 대해 주변에서 물어오면 도움을 드리기도 하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커피를 마시고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하는 것, 그런 소소한 일상이 좋네요.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니 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 어떠세요?

부모님과 제 위로 누나, 형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는 다섯 식구가 투닥거리기도 하면서도 재미있고 화목하게 지냈는데, 커가며 하나, 둘 독립하여 나가니 예전처럼 다 같이 모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많이 쓸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 또한 이렇게 타지에서



지내니 부모님이나 형, 누나가 많이 걱정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집에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마다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곤 합니다.

앞으로의 목표와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의 목표는 아직까지는 제가 맡은 일을 능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매끄러운 접수처리를 위해 별도로 공부해야 하는 부분이 쉽진 않지만, 차근차근 실무제의를 찾아보거나, 동기관님께 질의를 하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동료들이나 함께 일하는 분들과 잘 소통하여 편안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원 청사가 지은 지 오래되다 보니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주차장도 좁아 민원인이 법원 업무를 보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신청사로 이전하여 이런 점을 개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촬영해보시니 어떠신지 참여 소감도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서울까지 가야한다는 부담감과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는데, 촬영하면서 주말인데도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좋은 사진을 위하여 제 어색한 표정과 포즈를 수정해 주시면서 촬영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 비하면 제 걱정은 작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촬영 스태프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패션스타일 포인트

아이보리 터틀넥에 컬러감 있는 바지나 모자로 포인트 하세요!

코트룩으로는 핑크컬러 터틀넥에 아이보리 롱코트와 퍼플갈라 캐시미어 머플러를 함께 코디하여 부드럽우면서도 따뜻한 느낌으로 스타일링했습니다. 캐주얼룩은 평범하면서 포근한 느낌의 '겨울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라 할 수 있는 아이보리 터틀넥에 컬러감 있는 코듀로이 소재의 버건디 컬러 팬츠로 코디하여 무난한 듯하지만 개성 있는 스타일로 연출하였습니다. 정장룩은 큰 키와 슬림한 체형에 잘 어울리는 감색 스트라이프 무늬의 더블슈트와 핑크치프로 세련되면서 깔끔하게 보일수 있는 룩입니다. 재킷의 패턴이 체크무늬나 스트라이프일 경우 넥타이는 무늬 없는 단색의 타이로 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_권연화 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포인트

풍성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고 싶다면 모발 뿌리 쪽에 볼륨을 강하게 주세요!

코트룩에는 가르마를 타서 꾸민 듯 꾸미지 않은 느낌으로 세련돼 보이도록 연출하였습니다. 캐주얼에는 헤어에 컬을 주어 자연스럽게 내려 온화해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정장에는 깔끔하게 올려서 남성미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피부 커버에 신경을 써서 깔끔한 인상을 연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다 힘있고 풍성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기 위해 뿌리 쪽에 반대로 빗질을 넣어주면서 볼륨을 살려주었습니다.

_이해리 뷰티아티스트





한 줄 카피, 세상도 바꿀 수 있는 힘!

카피라이터 정철

장황한 내용의 인터뷰 요청 메일에 단 한 줄의 답신 메일이 왔다. “해봅시다! 까짓 거!”, 역시 ‘카피라이터 정철’다운 수락 메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캠페인 카피였던 ‘사람이 먼저다’, ‘나라를 나라답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서울시장 후보 시절 카피였던 ‘사람특별시’, 그가 낸 ‘카피책’(허밍버드) 표지에 쓰였던 ‘당신이 쓰는 모든 글이 카피다’ 등 얼굴은 몰라도 그의 카피 하나쯤은 대한민국에서 안 들어본 사람 없는 국가대표 카피라이터, 정철. 그에게 글쓰기의 힘, 힘있는 글쓰기에 대해 물었다.

취재 한경희 | 사진 김인규

글 쓰는 일, 그중에서도 광고 카피는 ‘글쓰기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한 내공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들었는데 이 일을 30여 년을 해오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자면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지요.

글을 쓴다는 행위를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30cm 밖으로 이동시켜서 종이 위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글을 쓰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동안 뒤틀리고, 분실되고 상처가 남니

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과 종이 위에 쓰인 글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글을 너무 잘 쓰려고 힘이 들어갔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잘’이라는 한 글자를 걷어 차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는 잘 써야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잘’이라는 글자를 던져버리고 그냥 내 머릿속 생각들을 내려놓는다고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글

이 풀립니다. 그 내려놓는 양이 많아지면 그게 글로 바뀌는 것이고요. 하루아침에 글을 잘 쓰는 방법이 현실에는 없습니다. 머릿속 생각을 내려놓는 '양'을 늘리다보면 그게 '질'로 바뀝니다.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고스란히 내려놓는 연습, 그게 바탕이 돼야합니다.

글을 나 혼자만 읽을 것이 아니라면 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직관적인 글을 써야 할 텐데 이를 위한 방법이 있나요?

따라해 보기 쉬운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글을 쓸 때 연필을 내려놓고 부엌칼을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김밥 썰 듯, 글을 잘게 썰어냅니다. 이 방법 하나만으로도 글이 굉장히 많이 늘니다. 때로 잘 안 읽히는 글들이 있습니다. 안 읽히는 글의 공통점은 한 문장의 길이가 굉장히 길고 마침표가 상당히 늦게 나옵니다. 주어는 저 위에 있고 세 줄, 네 줄 만에 마침표가 보입니다. 생

각이 긴 거리를 달려오다가 꼬이고 엉켜버려 비문이 됩니다. 그것을 여러 개의 문장으로 쪼개는 것만으로도 비문이 사라지고 명쾌한 글이 됩니다. 이걸 글 쓰는 사람이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두 번째는 조금 더 기술적인 것입니다만 내 글을 읽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준다는 생각으로 글을 쓰라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사진 한 장을 찰칵 찍어서 독자의 머릿속에 입력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메시지는 훨씬 더 생생하고 오래 기억에 남는 장점이 있습니다. 글이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냐는 독자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남자화장실 변기 위에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합시다'라고 적혀 있다면 너무 추상적이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요? '반 발짝만 앞으로 오세요'. 둘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차이가 느껴지죠? 오래 쓰는 연필이 있다고 칩시다. '오래 쓰는 연필'이라고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30cm 밖으로 이동시켜서 종이 위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글쓰기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연필 한 자루로 팔만 대장경을 쓰다’라고 하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죠? 이 차이가 카피라이터로 말하면 실력 있는 카피라이터냐 아니냐의 차이가 되는 거죠.

읽는 이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도 글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글쓰기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번에는 ‘무엇으로 이야기할까’에 대한 것이 되겠네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울림이 가장 큰 이야기도 늘 ‘사람’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쉽게 마음이 열리고 관심을 가집니다. 술안주로 사람 뒷담화가 가장 재미다고 하잖아요. 하하. 그러니 가능한 한 사람 이야기로 풀어보세요. 제품, 기술, 제도 이야기도 사람이 이야기로 풀었을 때 전혀 다른 느낌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아파트 앞에 모 대기업이 스포츠센터를 크게 세운다고 하여 비상이 걸렸고 아파트 주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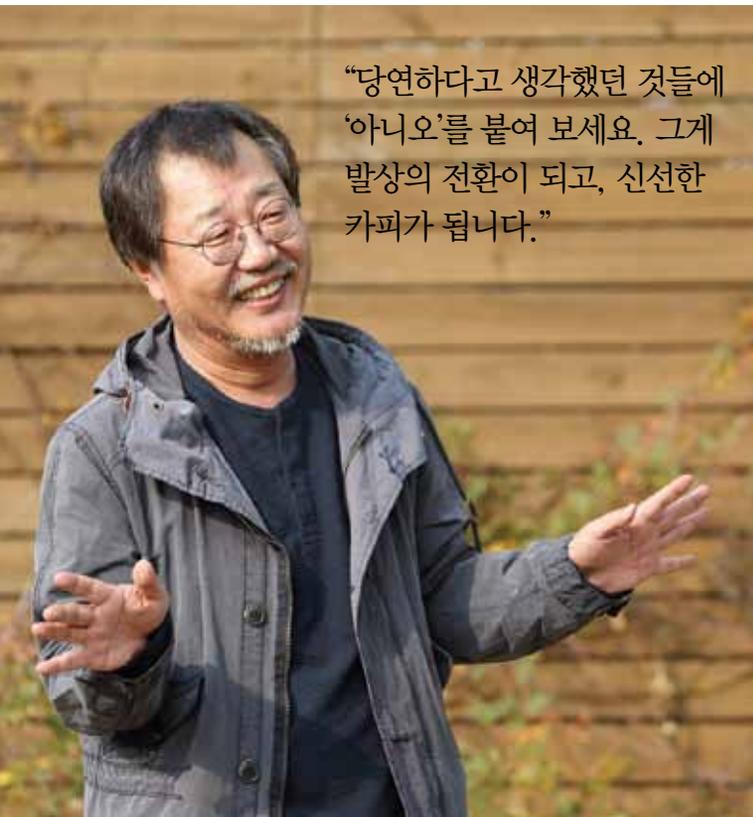
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는 세입자였지만 카피라이터라 회의에 소집되었다가 아파트에 붙일 현수막 카피를 덜컥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쓸까 고민했는데 보통 그런 현수막에는 붉은 고딕 글씨로 이렇게 쓰이죠. ‘아파트 코앞에 초고층 빌딩이 웬 말이나, ‘시민의 삶 짓밟는 누구 누구는 각성하라’ 이런 글귀들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집단이기주의로 보이기엔 더 쉬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쓴 카피가 ‘아이들이 햇볕을 받고 자랄 수 있게 한 뽀만 비켜 지어주세요’였죠. 이 카피가 현수막으로 올라가 그 일대에 화제가 됐고 MBC 뉴스데스크에도 소개가 됐어요. 그 대기업으로선 당연히 부담됐겠죠. 결과요? 우리 아파트 바로 앞은 2층, 뒤쪽으로는 20여 층인 ‘L’자형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 카피가 왜 사람들에게 울림을 줬을까요? 공감할 수 있는 주제,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사람’을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용인의 새 아파트가 ‘서울보다 저렴한 파격분양가’라면 그 아파트에서 살 사람 쪽으로 시선을 옮겨 다시 얘기해보겠습니다. ‘용인에 집 사고 남는 돈으로 아내 새 차 뽑았다!’. 제도, 법률 등 딱딱한 얘기도 여기에 살짝 녹여낸다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광고 카피는 아이디어가 생명일 텐데 작가님은 어떻게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시나요?

올해 제가 쓴 책 중 「틈만 나면 딴 생각」(인플루엔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생각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찾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태껏 저도 생각이라는 것은 떠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아니오’를 붙여 보세요. 그게 발상의 전환이 되고, 신선한 카피가 됩니다.”

르고 그 떠오른 생각으로 광고를 만들고, 글을 쓰고, 책을 펴낸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생각이 저절로 떠오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지요. 대부분 제가 손전등을 켜고, 현미경을 끼고 머릿속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니다 찾은 거예요.

광고 카피를 의뢰받으면 그 회사에 가서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그 프로젝트나 제품에 대해 소개를 받는 자리에서 설명을 들을 때 연상되는 것들을 막 적어놔요. 사물, 속담, 또 때로는 색깔이 될 수도 있고요. 모 카드사에서 새로 나온 빨간색 카드가 있다, 빨간색? 빨간 날? 빨간 날에는 OO카드. 연상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는데 거기서 카피 A안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적어 놓은 것들은 완성된 아이디어도 아니고 생각의 형태라고도 할 수도 없죠.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단지 습관과 치열함이 필요할 뿐이지요.

참신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깨는 작업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먼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아니오’를 붙여 보세요. 적당히 아닐 것 같은 것에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가져다 붙이세요. 기존의 생각들에 제동을 걸어보고 의심해보고, 부정해 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아니오’ 뒤에 어떤 문장이 올 수 있을까 찾아보세요. 그걸 찾으면 그게 발상의 전환이고, 그것을 글로 표현했을 때 아주 신선한 카피가 되는 겁니다. 발상전환을 위해 ‘아니오’ 놀이는 굉장히 중요하죠. 일부러 비틀어보는 거예요. 억지를 부려보는 겁니다. 억지를 부려 보다보면 자기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찾을 때가 있거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멧집을 키우는 겁니다. 새로운 시각을 말로, 글로 토해낼 때 비난을 들을 감수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하는 이들에게 창의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멧집인 것 같아요. 멧집이 없으면 못 버티죠. 내 나름대로 찾은 새로운 시각을 일단 던지고 멧집으로 버티다보면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그것이 누적되면서 처음에는 ‘쫂쫂쫂’ 하던 반응이,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로 바뀝니다.



작가님의 카피는 단순하면서도 기발하고, 그러면서도 따스한 여운이 남습니다. 연말을 맞은 <법원사람들> 독자들을 위해 따스한 카피 한 줄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람 이야기를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가슴 한켠에 ‘사람’이라는 두 글자가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글을 쓰기에 따뜻한 여운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을 구성하는 성분이 사랑, 긍정, 용기, 희망, 감사, 배려, 믿음...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 하나가 행복이고요. 연말이니 ‘행복’에 관한 카피 한 줄 드릴게요. 강연에서도 많이 전한 말,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불행해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불만을 계속 내뱉다 보면 어느새 불행해져 있죠. 행복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사람마다 그 기준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불만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이죠. 그러니 이 카피 한 줄로 여러분 모두 조금 더 쉽게 행복을 만들어가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

내 몸을 지키는 힘

면역력

겨울이 되면 감기가 기승을 부리고 이 감기는 ‘면역력’이 약해지면 더 쉽게 감염이 된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면역력이 약해지면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는데 대체 면역력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

글 송영권(좋은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면역력은 인체 방어력

면역력이란 세균, 바이러스 같은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 우리 몸을 보호하는 인체 방어시스템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병원균, 독소, 유해물질 같은 외부 인자뿐만 아니라,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이나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암세포를 포함한 건강을 해치는 모든 위험 요소에 대해, 인체를 보호하고 질병으로 진행되지 않게 하는 방어력을 말하기도 한다.

면역 기능의 작용으로 인체에 해로운 병원균이나 유해물질의 침입을 막고 비정상적으로 변형된 세포가 생기면 찾아서 제거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염증이 생기면 붓고 아프고 열이 나는데, 이런 반응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이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면역 작용의 결과이다.

자연 면역과 획득 면역

면역은 크게 자연 면역과 획득 면역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 면역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면역으로, 특정한 병원체를 가리지 않고 반응하는 일차 방어체계다. 피부와 점막, 타액, 눈물, 위산, 소화효소 같은 물리

적인 장벽부터 병원체를 섭취해 파괴하는 백혈구, 대식세포의 식균 작용이 여기에 해당한다.

획득 면역 혹은 적응 면역은 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후나 백신 접종으로 생기는 후천성 면역이다. 한 번 들어온 병원균이나 항원의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침입하면 림프구 같은 면역 세포에서 특정한 항체를 생성해서 제거하거나, 사이토카인 같은 면역 조절 물질을 통해 효율적으로 방어한다. 획득 면역을 얻기 위해서는 나이 혹은 질병 유행 시기에 맞는 적절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면역력이 저하되는 이유

면역 기능이 저하되면 특히 감염성 질환에 취약해지는데 입술포진, 구내염, 감기, 장염 같은 질병에 자주 걸리게 되며,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고 오래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면역 작용에 의해 억제돼 있던 비활동성 간염, 잠복 결핵, 대상포진 같은 질환들이 나이가 들거나 면역이 약해지면 어느 순간 활동성으로 진행되거나 잠재되어 있던 병이 나타나기도 한다.

면역력이 저하되는 이유로는 노화, 스트레스, 수면부족 등이 주된 요인이며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같은 계절적인 요인, 미세먼지 같은 환경적인 요인도 영향을 준다.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수면이 부족하면 피로가 누적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면역계의 기능도 약화된다. 또한, 미세먼지가 많거나 비위생적인 생활환경에서는 그만큼 외부 병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음식도 면역력과 관련이 높다. 설탕 함량이 높은 탄산음료, 식품첨가물이 많은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밀가루 음식, 포화 지방산이 높은 기름진 음식 등을 장기간 지속해서 섭취하면 체내 면역이 약화될 수 있다. 흡연, 과도한 음주, 비만 또한 면역 불균형을 일으켜 여러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



하나, 건강한 생활 습관은 필수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을 하고 음주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좋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위생적인 환경과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손을 잘 씻는 것만으로도 많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가 심한 날씨일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둘, 기운 북돋는 음식으로 영양분 보충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음식으로는 필수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와 등푸른생선, 비타민과 미네랄, 섬유질이 많은 채소와 과일, 버섯, 유산균, 해조류 등이 있다. 탄수화물은 빵이나 흰 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을 먹는 게 도움이 된다.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섭취하며 폭식이나 야식, 과식은 피하고 가능한 한 천천히 식사를 하는 게 좋다.

셋, 연령이 높다면 예방접종 필요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예방접종도 필요하다. 독감 및 폐렴, 대상포진은 나이가 들고 면역력이 약해질수록 발생률이 높고 증세가 더 심하다. 대상포진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성인에서 필요한 예방접종이며 매년 10~11월경에는 독감(인플루엔자) 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넷, 긍정적 사고와 즐거운 생활

스트레스 또한 면역력을 약화시키므로 가능한 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적절히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흥분하고 화를 내기보다는 자주 웃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글로벌 시대, 지구촌 이웃과

‘함께 만들어 가는 가치’

전쟁의 상흔을 딛고 GDP 세계 11위의 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50여 년 전 폐허가 된 우리나라에 달려온 전 세계 도움의 손길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는 세계를 향해 나눔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세상을 향한 더 큰 경험과 나눔의 행보, 해외봉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글 김영란(월드프렌즈코리아 글로벌인재양성총괄실 실장)
사진 제공 월드프렌즈코리아(www.worldfriendskorea.or.kr)



해외봉사, 28년간 96개국에 약 6만명

6.25 내전이후 세계에서 가장 피폐했던, '가망' 없어 보였던 대한민국이 우리를 지원해 준 세계 각국의 도움에 힘입어 반세기만에 대규모 경제발전과 함께 민주주의 발전을 이뤄낸 모범국가로서 발돋움하였다. 우리 국민은 가난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며 지금의 대한민국 발전의 기초를 세워졌는데, 세계 각국은 이러한 우리 국민이 가진 고유한 개발경험에 대해 궁금해 하며 이를 공유하고 교류하기를 희망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09년 월드프렌즈코리아(World Friends Korea, WFK, 개발도상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친구)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정부파견 해외봉사단사업을 통합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 이를 운영해오고 있다.

1990년 이후 28년간 우리나라 약 6만 명의 국민이 96개국에 파견되었다. 한국어, 과학, 교육, 자동차, 농업, 태권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의 역량에

따라 활동하며 우리나라가 과거에 받았던 국제사회의 도움의 손길을 '지구촌 이웃과 함께 하는 공유

가치' 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제는 돌려주려하는 마음으로 땀 흘리고 있다.

‘지구촌 이웃과 함께 하는 공유가치’의 의미

해외봉사단이 펼치는 활동을 들여다보면 '지구촌 이웃과 함께 하는 공유가치'의 의미가 잘 나타난다. 최근 서아프리카 카메룬에서 2015년에 설립된 수도 야운데(Yaoundé) 응급센터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카메룬은 GDP 세계 96위로 경제사정이 열악하여 선진국의 원조를 받는 상황으로 지난 2016년 11월에 수도인 야운데(Yaoundé)로 향하던 열차가 탈선하여 무려 79명이 사망하고, 500여 명이 부상당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카메룬에 파견되었던 코이카 사무소 직원들과 월드프렌즈코리아 봉사단원들은 모두 모여 재난발생시 특히 취약한 카메룬의 응급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다. 보건, 간호 분야단원들과 응급의학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36명의 한국인들이 합숙 워크숍을 통해 국립 야운데 응급센터의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재난대응 프로토콜을 만들어 카메룬인 400명을 대상으로 응급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역대 카메룬 응급대응 훈련 중 가장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해외인력이 연합하여 비상위기 훈련을 실시하여 현지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소속과





서아프리카 카메룬에서 펼친 응급체계 개선 활동.

국적이 다르고 취미도 언어도 다른 이들이 재난상황에서 인력을 구하기 위해 서로의 마음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을 갖추도록 협력하는 것은 바로 '지구촌 이웃과 함께 하는 공유가치'를 실현하는 현장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해외봉사, 세계 이웃과 함께 하는 '소확가'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우리나라 인구도 더 이상 젊지 않다. 그러나 과거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가 지금의 발전과 성장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고, 이를 부인하는 시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식량의존도, 석유 등 자원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우리나라에게 개발도상국은 미래의 친구이며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가 가진 경험과 그들이 가진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더 나은 세계로 가는 시스템과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국제개발협력에서 해외봉사단원들이 활동하고 성과를 발휘하는 영역이다.

월드프렌즈코리아 해외봉사단의 경우 짧게는 1~2주부터 길게는 2-3년까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연령도 다양하다. 해외봉사단은 교육부의 청년봉사단(1-2주, 만 19-34세 미만 대학생 신분 지원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지원단(6개월-3년, 이공계 학사 학위이상자 지원가능) 및 IT봉사단(1~6개월, 만 18세 이상 지원 가능), 산업통상자원부의 NIPA자문단(6개월~3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퇴직자 지원 가능), 보건복지부의 한방봉사단(1주~1개월, 만19세 이상 의료면허소지자 지원가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KOICA봉사단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봉사단(1~3년, 만 19세 이상 지원 가능), 국제개발전문봉사단(1년, 학사이상 학력 보유자), KOICA-UNV 대학생봉사단(6개월~1년6개월, 만18-29세 미만 대학재학자 지원 가능), 드림봉사단(1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NGO봉사단(1-3년, 만19세 이상 지원 가능), 청년중기봉사단(5개월, 만 19-34세미만 대학생 지원 가능), KOICA 자문단(6개월-3년, 퇴직(예정)자로서 경력 10년 상자 지원 가능)으로 각각 구성되니 자신에게 맞는 자격요건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외봉사를 지원해볼 수 있다. 그 외 KOICA 봉사단 모집에 대한 상세정보는 KOICA봉사단 홈페이지(kov.koica.go.kr), 기타 월드프렌즈코리아 봉사단 모집에 대한 상세정보는 월드프렌즈코리아 공식홈페이지(www.worldfriends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대변되는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도 우리의 미래 친구이자 이웃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함께 느끼고 공유하는 활동에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 대학교 졸업전에 미래의 직장을 탐색하기 위해 해외 경험과 언어 등 역량을 쌓아보고 싶은 시기에,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 전에 그리고 은퇴하여 새로운 삶을 찾는 시간에 짬을 내어서 KOICA의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소확가(작지만 확실한 가치)'를 권해보고자 한다. 🍀

법원 사람들 원고모집

법원가족 사연을 기다립니다. 직장생활, 업무 속 에피소드 등 다양한 주제로 참여가 가능하며 원고가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더불어 '스타일링룸'에 참여해 주신 분께도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원고 분량: PC로 작성할 경우 A4용지 3장 이상
- 원고 마감: 수시 • 보내실 곳: 법원사람들@scourt.go.kr • 문의전화: 02-3480-1456 공보관실
- 법원사람들 홈페이지: <http://people.scourt.go.kr>

사법부 홍보를 위해 대법원 페이스북, 트위터와 블로그 '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스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가족 여러분의 많은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 페이스북 주소: <http://www.facebook.com/scourtkorea>
- 트위터 주소: <http://www.twitter.com/scourtkorea>
- 블로그 주소: http://blog.naver.com/law_zzang
http://blog.daum.net/law_zzang
- 유튜브 주소: <http://www.youtube.com/scourtkorea>
- 인스타그램: <http://www.instagram.com/scourtkorea/>

지난 호 퀴즈당첨자

민수정 실무관 서울고등법원
신규철 사무관 수원지방법원
조영광 실무관 순천지원
유성원 실무관 영동지원
김현주 실무관 특허법원

지난 호 퀴즈정답



다른 그림 찾기



법원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법원사람들」을 만드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 「법원사람들」에 관한 소감을 '다른그림찾기' 정답과 함께 보내주세요.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표시한 후 사진을 스캔하여 해당 월 20일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법원사람들@scourt.go.kr • 정답 및 당첨자는 다음 호에 게재합니다.
- 소감과 다른그림찾기 정답을 모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하여 매월 주첨을 통해 대법원 기념품을 드립니다.

박해용 참여관
(울산지방법원 민사신청과)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법원의 일은 남의 일로만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 법원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이 되었습니다. 막막하기만 한 나날들로 하루하루가 너무나 답답하였고, 그로 인해 생활 자체를 하기 힘들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에 가게 되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르는 것을 직접 물으며 답답함을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나 여쭙게 된 울산지방법원의 관계자분들 모두는 제게 너무나 친절하셨습니다. 더욱이 경매계장님-6계 계장님이라고 하셨는데, 경매에 대해 전혀 무지한 제게 바쁜 와중에도 일일이 짚어가며 쉽게 설명해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음료까지 주시면서 힘내라고,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데, 그 어떤 누구의 격려보다도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함도 알려주시지 않고, 저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 것 같아 인사도 제대로 못 하고 도망치듯 나오면서 생각해보니 저와 같은 민원인들이 매일매일 각기 다른 일들로 각자의 사정을 얘기하러 올 텐데 어찌 그리도 친절하고 세심하게 배려하실까, 큰 고마움이 들었습니다. 답례할 것도 없이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돌아왔지만 감사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울산지방법원 법원 관계자 분들, 고개 숙여 너무나 감사드리고 공무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저를 스스로 고개 숙여 감사한 마음이 들게 해주신 경매6계 계장님 언제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8. 8. 정○○

아는 만큼 좋아지는 편리한 법원생활 가이드

대한민국 법원이 국민을 위해 만들어 가는 더 좋은 제도,
알면 알수록 더 편리하고 안심되는 다양한 사법제도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행복을 높이는 좋은 법원으로 나아갑니다.



• 국민참여재판 •

국민이 재판의 과정에 참여하여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판이 가능합니다.



• 성년후견제도 •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더욱 존중하여
만약의 경우에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 인신보호제도 •

위법 또는 부당하게 감금당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 전자소송 •

전자로 소송 절차가 가능해 불필요한
시간·비용을 줄일 수 있어 더 편리합니다.



• 조정제도 •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를 주선· 권고하는
쉽고 빠른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 온라인출생신고 •

관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합니다. (참여병원에 한함)